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제3312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일>

코스피 1979.32 (+16.51)

코스닥 684.79 (+6.31)

금리(국고채 3년) 1.60 (+0.03)

환율(원·달러) 1177.00 (−4.50)

김무성, 물러설 곳이 없다

공천권 확전 자제에도 靑·친박 연일 파상공세 '적과의 동침' 파국 조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불안한 동거가 파국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박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온 김 대표는 이번 공천권 전쟁에서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은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심지어 물밑에서만 떠돌던 '반기문 친박 대선주자론'이 친박 핵심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 당내 주도권을 내주면서 대선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김 대표로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고개 숙여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전날 청와대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공개비판에 대해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경고했던 김 대표는 1일 예정된 정치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와 친박계에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당시 사전에 회동사실은 물론이고 합의 내용까지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누구와 접촉했는지에는 입을 다물었다. 일정 보이콧에 대해서도 감기 탓을 했다. 확전을 피하고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에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은 확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전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접촉했다는 청와대 인사를 스스로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대표가 만난 청와대 인사는 (현기환) 정무수석"이라며 "지난달 26일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겠다는 것과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무수석은 안심번호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 당시에도) 정무수석은 그게 당론도 아니고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김 대표에게 말을) 했다. 대통령께는 그때 유엔 외교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보고를 안드렸다"고 했다.

친박계는 청와대의 반박이 나오기 전 김 대표에게 청와대 인사를 공개하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불참한 최고위 회의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마냥 쓸데 없는 것으로 (김 대표가)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다"고까지 말했다. 여기에 더해 "왜 이걸 갖고 대표직을 걸어야 하느냐. 이미 물 건너간 일을 가지고 왜 정치생명을 건다고 얘기했냐"며 "김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제 발에 발등 찍은 것'으로 잘못이다.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 대표 공격에 앞장서 온 홍문종 의원의 발언이다. 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홍 의원은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 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말하는 등 대통령이 반 총장과 이런저런 긴밀한 말을 나눈 것 같다"며 "국민들이 좋아하고 충분히 검토·고려해 볼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김 대표의 대권 행보를 차단할 대항마로 반 총장을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한 상황이지만 친박계 의원의 입에서 직접 거론되기는 처음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에 선출되기 이전부터 박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위기 때마다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지난해 중국 방문 당시 '개헌 봇물론' 발언 때도,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에서도 모두 뒤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유승민 사태 당시 "대통령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고 말해 그 이유를 짐작케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김 대표는 친박계의 고사를 노리고 '국민공천제' 도입에 올인해 왔다. 주변에서는 김 대표가 계속 인내하면 내년 총선을 계기로 당을 장악하고 대선 가도에도 순풍이 불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계의 총공세는 김 대표의 인내를 불허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굴복을 강요당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LG전자 "갤노트5·아이폰 6S, 한판 붙자"

프리미엄폰 'LG V10' 공개

"역동적 젊은세대 위한 제품" 출고가 79만원대 8일 출시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이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10'을 공개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와 애플의 아이폰6S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조 사장은 1일 서울 반포 세빛섬에서 열린 'LG V10' 출시행사에서 "보편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사양의 기능을 담기보다 새로움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LG V10'에 담긴 차별화된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조 사장은 "LG V10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삶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혁신을 담아낸 제품"이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특별함이 있는 순간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제품으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조 사장은 'LG V10'을 통해 전에 없던 사용자경험과 강력한 내구성, 사진에서 영상으로의 트렌드 변화, 하이엔드 사운드까지 많은 것을 담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모바일 트렌드를 주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LG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V시리즈와 기존의 G시리즈의 투트랙 전략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김종훈 LG전자 MC사업본부 전무는 "프리미엄 라인인 G시리즈는 세단 차량같은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며 "V시리즈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제품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준호 LG전자 사장이 1일 서울 반포 세빛섬에서 'LG V10'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LG전자는 'LG V10'에 세계 최초 이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했으며 두 가지 화각을 담은 듀얼 카메라를 적용했다. 또 내구성 강화는 물론 고성능 전문 오디오 칩셋으로 풍부한 음향을 제공한다.

제품 출고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79만9700원이며 8일 국내 이동사를 통해 출시한다. 이후 미국 등 주요 국가에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이날 서울과 뉴욕에서 동시에 새 스마트폰인 'LG V10'을 내놔 프리미엄 브랜드인 'V시리즈'를 새롭게 알렸다.

/양성운 기자 ysw@

Tons of part-timers not getting even their minimum wage

최저임금 못받는 알바생 수두룩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bor, there were about 1240 reports that were filed because they didn't keep the minimum wage last year.

Looking at the statistics of part-time-job consultant from the Meeting of part-timers, 105 reports out of 416 which take up about 25.2% were the consultations related to minimum wage issues.

A personnel from the meeting of part-timers said that it is only the number of consultations, but the actual number of violations is expected to be 10 times higher than the 1240 reports that the ministry of labor estimated.

One student-part-timer insisted " I can gather 1200 people who didn't even get minimum wage in my area itself." The student was saying that we cannot report to the police because we are only employees. You can hardly find people working with minimum wage or more than the minimum at convenience stores or internet cafes.

CU and GS25 are competing only to increase the number of its stores, and they do not have any plans for minimum wage. The companies of convenience stores guarantee the income for the shop owners but the hired part-timers are exceptions.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신고된 것은 1240건에 달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인알바노조알바연대(이하 알바연대)의 2014 아르바이트 상담 통계에 따르면 총 416건의 상담 중 25.2% 105건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상담이다.

알바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상담건수 일뿐 최저임금 위반 건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1240건의 10배 이상 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당장 우리 지역에서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 1200명을 모을 수 있다"며 "학생은 최하위 '을' 위치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 편의점, PC방에서 일하는 학생 중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CU, GS25 등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 수 늘리기 경쟁만 할 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 편의점 기업들은 또 점주의 수익은 보장하지만 고용된 알바는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이틀 연속 **우편물 연쇄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체포됐지만 우편물 폭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테러 공포가 번지고 있다.

▲ 독일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리콜과 벌금, 사태 수습 비용 등으로 최대 86조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 **러시아**가 수십년만에 중동에 무력개입을 하자마자 미국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미국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이 이슬람국가(IS)가 아닌 시리아 반군을 대상으로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업무정지) 직전 임시예산안 편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사회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 발표 전에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의 내막을 공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대와 대결하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해 부산 영도에서 김무성 대표와의 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 **북한 외교관**이 2차 한국전 발발할 경우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청와대를 극비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보건복지부**는 제19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올해 100세가 된 장수 어르신 1432명에게 장수지팡이인 '청려장'을 증정한다고 1일 밝혔다.

▲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규정된 안전검사 165종에 점검 내용과 함께 점검자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직영기업을 제외한 142개 전 지방공기업 중 100곳에서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 2010년부터 6년간 전국 **검찰청**에서 발생한 피의자·참고인 자살 79건 가운데 서울고검 관내 사건이 32건(40.5%)에 달했다.

▲ 서울시는 여의도 **지하벙커**를 2016년 10월 초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시민 체험 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첫 날 백화점 할인코너 북적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할인코너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LG전자가 1일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10'을 공개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와 애플의 아이폰6S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제품 출고가는 79만9700원이며 8일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출시하고 이후 미국 등 주요 국가에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 폴크스바겐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차세대 판도가 디젤에서 전기자동차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전기 SUV를 출시했다. LG화학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삼성SDI는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KT**는 1일 군 복무 중인 병사가 군 전용전화, 공중전화로 걸어도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표시해 주고 매월 무료통화, 휴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올레 나라사랑 요금제'를 출시했다. 월 1만4900원의 비용으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200MB, 문자 300건을 제공한다.

▲ 1일 마감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는 카카오 컨소시엄(카카오뱅크), 인터파크컨소시엄(아이뱅크·I-BANK), KT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3파전을 예고했다.

▲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던 각종 규제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8월 실적이 호조로 나타나면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보험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장기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이 순이익을 끌어올렸다.

▲ 아파트 **분양시장**에 4베이 평면이 보편화되면서 넓어진 세대면적에 찬장을 높여 다시 위아래로 늘리는 3차원 공간마케팅이 한창이다.

▲ 홈플러스와 CJ제일제당 등 일부 **식품·유통업체**들이 공장식 닭장에서 낳은 달걀을 마치 초원에서 방목된 닭이 낳은 '친환경 달걀'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가을을 맞아 신혼부부가 부쩍 늘며 **가구 업계**가 다양한 침실가구를 선보이며 신혼부부 공략에 나섰다.

김무성 "안심번호 합의, 靑에 미리 알렸다"

찬반의사 없었지만 상의
靑에 노골적 비판 자제해
전략공천 없다는 입장 고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 발표 전에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의 내막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공개한 뒤 "(당시 청와대로부터) 찬성, 반대 의사는 듣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내가 전개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의했다. (회동이) 끝나고 난 뒤 발표문을 그대로 찍어 다 보냈다. (청와대에서는) 그냥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김 대표는 자신과 접촉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만 없는 사실을 갖고 자꾸 비난하면 당이 분열만 된다. 그럼 선거에 불리해진다. 지금 야당은 분열됐고 우리는 그동안 잘 단결했는데 우리가 분열되면 똑같은 입장이 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지난달 28일 나왔다. 합의 당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던 청와대는 전날 처음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대표는 내막을 공개하면서도 청와대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어제 의총에서 내린 결론은 국민공천제 취지 하에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입각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공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논의 내용은 자유다. 하지만 만약 기구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도 개인적으로, 당 대표로서 전혀 생각이 없다"며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예정된 정치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김 대표는 "감기가 나은 듯 했는데 재발한 것 같고 몸도 안 좋고 해서 늦게 일어난 것이다. 너무 의미를 두지 말길 바란다"고 말해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 대표가 빠진 최고위 회의에서는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 어제 모두 동의하는 결론을 낸 것을 갖고 다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 되지 이걸로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불필요하게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었다는 서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의총서 수차례에 걸쳐 토론한 결과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걸 정치 개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개혁안을 관철하기 위해 당 대표가 노력하는 차원에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게 잘못됐냐"고 반박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중국 우편물 연쇄테러 공포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류저우시 류청현에서 전날에 이어 1일 한 아파트에서 또 한 번의 폭발사건이 발생했다. 전날 오후 류청현에서는 지방정부 청사, 버스 정류장, 인근 병원과 시장, 슈퍼마켓 등에서 17차례에 걸친 폭발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고 51명이 부상했다. 사진은 전날 발생한 폭발사건의 현장. /연합뉴스

北 김양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靑 극비 방문

합의문 협의 위해 만나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청와대를 극비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1일 공개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남북정상선언'에서 "김 부장은 최승철 부부장과 원동연 실장을 대동하고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극비리에 방문했다. 9월 26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북측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 일행의 청와대 방문은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서 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선언을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원장은 "이러한 입장차이를 잘 알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김 부장 일행에게 직접 남북이 합의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문제 등을 거론한 뒤 이번 정상회담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회고록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주고받은 발언들도 담겼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 전 국방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남측의 자주적 태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고, 친미국가인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 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는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고록에는 종전선언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10·4남북정상선언문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논의와 관련한 비사, 선언문 최초안에 남북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사실 등도 담겼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 김 전 국방위원장은 "해주는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노 전 대통령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열고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회고록은 4일 시판 예정이다. /송병형 기자

폴크스바겐, 사태 수습비용만 최대 86조원

작년 영업이익의 약 5배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리콜과 벌금, 사태 수습 비용 등으로 최대 86조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확산하면서 폴크스바겐은 감산을 위해 엔진공장의 특근을 없애고 자동차금융서비스부문에서 올해 신규채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산업 분석가들은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최대 650억 유로(약 86조원)를 동원해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폴크스바겐그룹의 작년 영업이익 127억 유로(약 16조원)의 5.1배에 달한다.

폴크스바겐은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65억 유로(8조6000억원) 상당의 충당금을 쌓아뒀다고 발표했지만 벌금과 수리비용, 소송까지 감안하면 이의 10배에 가까운 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상반기 감사보고서 기준 180억 유로의 현금과 유가증권 150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유동자금 170억 유로, 스즈키 지분을 팔아 벌어들인 50억 유로, 우선주 배당 80억 유로 등이 동원 가능하고, 만약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업 부지나 람보르기니·부가티·벤틀리 등 보유 럭셔리 브랜드를 매각하면 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내다봤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립은행(LBBW)은 폴크스바겐이 감당해야 할 총 손실액을 470억 유로(약 62조3000억원)로 추정했다. 폴크스바겐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내야 할 벌금으로 최대 181억 달러(약 21조원), 차량수리 비용으로 최대 200억 달러(약 23조원), 고객들이 리콜 대신 환매를 요구할 경우 문제의 차량을 다시 사들이는 데 100억유로(약 13조원)가 각각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밖에 각국 정부가 친환경차량 구매에 지급한 보조금 환급과 배출가스 조작으로 손해를 본 차주와 주주들의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등을 추산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장 미국 법원에만 현재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40여건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폴크스바겐의 주가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터진 이후 급락해 시가총액 280억 유로(약 37조원)가 날아갔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폴크스바겐 주주들이 이중 150억 유로(약 20조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이 이 회사가 감당해야 할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감산 등 대응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잘츠기터 엔진공장은 예방차원에서 특별근무를 없앴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공장은 앞서 수요가 넘쳐 특별근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폴크스바겐 자동차금융서비스 부문은 올해 말까지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대표이사 편집국장	이 장 규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온정주의 원천봉쇄… 철밥통 깨기 재도전

정부, 공무원 인사혁신 '시동' 능력·성과중심 인사관리 강화

역량미달 고위직, 재교육 의무 직위해제·직권면직 가능해져

정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 철밥통 깨기에 재도전한다. 이미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공무원 사회의 온정주의에 막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온정주의를 봉쇄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사혁신처는 1일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성과평가 제도를 대폭 수정해 '온정주의 및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 평가를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업무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의 경우 재교육 등을 통한 역량향상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거나 심할 경우 직위해제와 직권면직도 가능하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및 직권면직 등의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직까지 이뤄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어 유명무실했다. 현행 규정은 부처 내 10% 공무원에게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줘야 하지만 '미흡' 평가만 있었을 뿐이다. 온정주의 문화 탓이다.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공직박람회'에 참석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혁신콘서트에서 '미래를 향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최하위 등급' 평가를 해야 한다.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각 부처는 이번 개선안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및 평가·재배치 과정의 도입이다. 정부는 최하위 등급 부여 등으로 재교육 대상이 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소속 부처, 인사혁신처 관계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교육 결과를 평가해 성과가 우수할 경우 원래 부처로 복귀하거나 타부처로 재배치된다. 재교육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6개월 간 호봉 승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무직 공무원들도 업무 평가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업무 복귀와 타 부처 재배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각 부처의 현행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北외교관 "2차 한국전 땐 美와 핵전쟁"

현학봉 英 주재 北대사 "어떤 전쟁도 대응 가능"

북한 외교관이 2차 한국전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런던 사무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60년 전 소총을 들고 미국에 맞섰던 북한은 이제 핵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북한은 이제 미국이 선택하는 어떤 종류라도, 재래식전쟁이면 재래식전쟁, 핵전쟁이면 핵전쟁 모두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은 앞서 포격을 주고받은 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지만 북한은 여전히 새로운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어떠한 갈등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만일 한반도에 새로운 남북 간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는 1950년대에 있었던 전쟁보다 훨씬 파괴적일 것이고 그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웃국가나 유럽처럼 어느 때라도 위성(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돼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10배 더 강한 핵폭탄이 태평양을 건널 것"이라고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12킬로톤이다. 전후 급속한 원폭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수천배에 달하는 핵무기까지 개발됐다. 이를 감안하면 현 대사가 말한 히로시마 원폭의 10배 위력의 핵무기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 대사는 북한이 직접 영국을 핵타격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서구 미디어가 묘사하는 것처럼 공격적이지 않으며 핵무기는 (전쟁) 억제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현 대사에 앞서 제레미 코빈 신임 영국 노동당 대표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며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핵 억제책으로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형 기자

朴 대통령 "北, 핵·미사일 개발에 민족 운명 위태"

핵 고집땐 국제사회 고립 "대화의 장 나오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은 깊어질 뿐이며 경제발전의 길도 결코 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내미는 협력의 손길을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을 향해 "(북한이) 도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서 흔들림없는 안보의 반석이 돼야 한다.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야말로 군의 생명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을 언급하면서 "조국수호의 의지를 불사르면서 견위수명의 군인정신을 보여줬다. 애국심으로 무장한 우리 군이 있기 때문에 국민 안위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수뇌부, 장병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불참했다.

/송병형 기자

"DMZ 예산 증액? 야전 구급차 전액 삭감"

백군기 의원 '뻥튀기' 지적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포격 도발 사태를 계기로 40% 증액했다고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전력개선 예산이 25배나 '뻥튀기'됐고, 되레 휴전선을 비롯한 야전부대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신형구급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DMZ 전력개선비 3조28억원 중 작전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1223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이 찾아낸 관련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004억8800만원, 전력운영비 218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차기열상감시장비(TOD), 다기능 관측경, 원격운용통제탄, 신형 7.62㎜ 기관총, 저격용 소총, 휴전선 철책보강과 전술도로 정비 등에 들어가는 예산들이다.

또 2016년도 예산안에서는 야전부대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신형 구급차 교체 예산 30억원,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맞설 신형 화생방 정찰차 양산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백 의원은 "2016년도 국방예산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일 곳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가 북한의 DMZ 도발에 따른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 DMZ 전력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이 직결된 구급차나 화생방 정찰차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DMZ 전력보강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것처럼 부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DMZ 전력보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전력까지 포함시키면 더 큰 규모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홍보도 가능하다. 국민을 기만하는 뻥튀기식 예산홍보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병형 기자

고1부터 수능영어 90점 이상이면 1등급

교육부 2018 수능기본계획 9등급 절대평가 도입 확정

현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 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구분된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기 때문에 현행 상대평가에서 1점이라도 더 따려는 수험생들의 과도한 경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일 영어 절대평가의 세부적 도입 방안을 포함한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상대평가에서는 성적표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되지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등급만 표기된다.

영어 만점은 현재와 같이 100점이고 등급간 점수 차이는 10점으로 설정됐다. 예를들어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 60~69점은 4등급이다.

현행처럼 문항 수는 45개이고 1개 문항당 배점은 2점이나 3점이 될 전망이다.

영어 절대평가에서 틀린 문항이 4개 이하가 돼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정책연구를 진행, 고교 현장, 대학입학 관계자, 영어 및 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등급 개수로 9개 또는 4~5개 중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간 차이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고 기존 수능 점수체제와 조화도가 높은 9등급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등급을 4~5개로 결정하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교생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고3 수능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금옥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전 자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수능의 영역별 등급은 9개이고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과목인 한국사도 9등급제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영어 절대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른 응시자와 무관하게 본인의 원점수에 따라 정해진 등급만 부여받는다"며 "점수 1~2점을 더 받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영어도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다며 '쉬운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 학교의 영어 수업이 문제풀이에서 벗어남으로써 학생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균형 있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2017년 11월16일(목요일)이다.

영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시험 체제는 2017학년도와 같다. 영어와 함께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지는 한국사는 만점이 50점이고 20문항이 출제된다.

국어는 45문항이, 수학은 문·이과로 나뉘어 30문항이 각각 출제되고 국어와 수학의 만점은 각각 100점이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제2외국어·한문은 1과목만 치를 수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관광객들로 가득 찬 명동거리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명동 중심가가 궂은 날씨에도 국경절을 맞이해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대법 "봉원사 재산관리 권한, 조계종에 있다"

태고종 패소 원심확정 "소속 사찰로 등록돼있어"

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조계종봉원사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비구와 대처가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구성했다.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한 1962년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이에 반발해 1970년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의가 조계종이면서 태고종에서 계속 점유·관리했다.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다. 조계종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태고종 소속 주지와 승려들이 봉원사를 그간 점유·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에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봤고, 2심도 태고종이 봉원사를 점유한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유선준 기자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2년만에 재판

한 전 총리 유죄로 재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1심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2013년 10월1일 이후 중단됐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수감중이던 그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 편지 등을 확보했다. 그 뒤 2011년 7월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2013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올해 8월2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위증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회에 걸쳐 위증을 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에 한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한 만큼 한 전 대표도 유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유선준 기자

강용석, 상인 대리로 세월호 유족 상대 손배소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며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송인으로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랑유원지의 매점과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6개월간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상인들은 이곳 화랑유원지가 10만평이 넘는 규모로 안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과 행락객이 찾던 곳이었으나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발길이 뚝 끊기면서 식당과 매점의 매출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선준 기자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국감서 재점화

처벌수위 봐주기 논란+수사과정 의혹에 수면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의 처벌 수위를 놓고 한차례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지만 최근 수사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다.

고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의 범죄사실이 일부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임 의원은 "작년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 속 공소사실에 주사기로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적시된 내용은 압수수색 시점과 1년 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자택이 아닌 차량이 투약 장소인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에 빠졌다면 축소수사 아니냐"고 따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박민표 검사장은 "이씨는 검찰이 직접 체포해 구속한 사안이며 1차 기소를 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 후 2차 기소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씨의 공범 수사와 처벌수위를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 아들인 노모씨와 CF 감독 배모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야권의 봐주기 수사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김진태 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해 DNA 검사를 받은 김 대표의 딸에 대해 "결과가 나왔느냐"고 검찰에 묻기도 했다. 박 검사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면제 판정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신씨의 병역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주신씨가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치아 X레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충치 치료용 소재인 아말감을 치아 14개에 씌운 것으로 돼 있는데 20대 청년으로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아말감 치료 당시의 서류라며 치과의사가 낸 보험증도 치료 당시인 2005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주식투자한 사립대 3분의 1은 손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교비회계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한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3곳 중 1곳은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0~2014 회계연도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7790억원이었던 교비 적립금 주식투자 금액은 지난해 1조864억원으로 4년 동안 39.5%(3074억원) 증가했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4년제 대학의 투자액은 2010년 5140억원에서 지난해 7830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전문대는 같은 기간 2650억원에서 3033억원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수익률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2010년 -1.9%에서 2011년 -0.1%, 2012년 0.9%, 2013년 1.2%로 조금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0.5%로 떨어졌다. 작년의 경우 은행이자율보다 못한 수익을 올린 것이다.

주식투자를 한 사립대 중 손실대학 비율은 2010년 31.0%, 2011년 35.0%, 2012년 35.2%, 2013년 54.3%, 지난해 31.9%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사립대 285개교 가운데 47개교가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15개교는 손실을 봤다.

특히 서강대 손실액은 8억6000만원, 경남대 손실액은 1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2007년 1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으로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각종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선준 기자

"우리 결혼했어요" 국군의 날 맺어진 예비상근역 부부들 육군 제17보병사단 산하 507여단은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3시 경기도 부천시 부천소풍컨벤션웨딩홀에서 상근예비역 신혼부부 16쌍을 위한 병영 합동결혼식을 열었다. 결혼식을 올린 상근예비역들이 하객들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法, 가계부채 위기 가정 파산·회생 지원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 부채로 위기에 놓인 가정을 돕기 위해 법원이 나섰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가정에 개인파산·회생 등 채무조정절차를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상담자 가운데 채무 부담이 가정 불화의 주요 원인인 사례를 찾아내 개인파산·회생절차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소속 변호사가 신청 절차를 대리해주면 법원은 이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다 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이들이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개인파산·회생절차를 거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가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노사 70%, 임금피크제 합의

전국 지방공기업 노사의 70%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직영기업을 제외한 142개 전 지방공기업 중 100곳에서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42곳도 연내 노사합의를 보겠다는 추진계획을 행자부에 냈다.

지난달 30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기' 확정한 지방공기업 100곳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진다.

경영평가등급은 임직원의 성과급에 연동된다.

임금피크제 조기 합의 지방공기업 100곳 중에는 도시철도공기업 4곳(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도 포함됐다. 7개 도시철도공기업 중에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사가 아직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도 도시개발공사는 16곳 모두가, 지방공단은 82곳 중 56곳(68%)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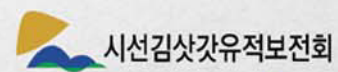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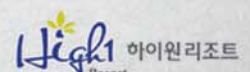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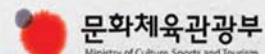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는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최악의 경우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봉급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행자부는 도시개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이어 지방공단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이날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에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지방공기업에 확산하면서 단기간에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나머지 기관도 조속히 도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www.ywtour.com
제18회
김삿갓문화제
10.9금 -10.11일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김삿갓유적지 일원
주최·주관 영월군 시선김삿갓유적보전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LG V10' 사용자 의견 적극 반영해 차별화

탈착형 배터리·SD카드 지원
셀카봉 없어도 듀얼 카메라로
이형 디스플레이 적용 스크린

LG전자의 'LG V10'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차별화를 꾀한 제품이다.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을 즐기는 2030세대를 위한 셀피(셀프카메라)와 동영상 촬영에 특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전면 500만, 후면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셀카봉 없이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전면에 각각 120도와 80도의 화각을 지닌 두 개의 카메라(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듀얼 카메라의 기능은 카메라 하나가 피사체의 초점을 잡으면 다른 하나는 배경을 촬영한 뒤 나중에 이미지를 합성한다. 이렇게 잡아낸 이미지는 화질은 물론 원근감도 훨씬 빼어나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120도 광각 카메라는 같은 거리에서 더 넓은 영역을 사진에 담을 수 있어 셀카봉 없이도 7~8명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1일 LG전자가 서울 세빛섬에서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 V10공개행사를 열었다. 모델이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V10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G4에서 선보였던 카메라 전문가 모드에 이어 '비디오 전문가 모드'도 탑재했다. 동영상 촬영 시 초점, 셔터스피드, 감도(ISO), 색온도 등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전자식 손떨림 방지(EIS) 칩을 별도 탑재해 전문 캠코더급 손떨림 보정이 가능하다. 16:9뿐만 아니라 극장처럼 21:9 비율로도 촬영이 가능하다. V10은 '퀵 비디오 에디터'로 촬영 영상을 쉽고 빠르게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LG V10' 이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세컨드스크린을 탑재했다. 디스플레이 상단 오른쪽에 작은 직사각형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올려져 날씨, 시간, 요일, 날짜, 배터리 상태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알림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게임을 실행하고 있어도 전화나 문자가 오면 세컨드스크린에 정보를 표시해 화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다.

또 내구성도 한층 강화했다.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금속 소재를 채택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316L로 만들어진 '듀라 가드'를 측면 프레임에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스테인리스 스틸 316L은 내부식성과 강도가 높아 외과용 수술기구나 명품 시계에 사용되는 금속 소재다.

'LG V10'은 고성능 전문 오디오 칩셋으로 풍부한 음향을 제공한다. 32비트 하이파이 DAC 부품을 탑재해 최고 384㎑까지 음질을 높여주는 '업샘플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5.7인치 QHD(2560×1440)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에 퀄컴 스냅드래곤 808 모바일 프로세서, LPDDR3 4GB 램, 64GB 내장 메모리, 마이크로SD 카드 슬롯을 지원한다. 배터리는 G4와 같은 3000mAh 용량의 탈착형으로 40분 내에 50%까지 고속충전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가 1일 공개한 LG 워치 어베인 2nd 에디션. /LG전자 제공

LG전자

LTE 지원하는 스마트워치 'LG워치 어베인 2nd 에디션'

LG전자가 LTE 통신기능을 지원하는 첫 번째 안드로이드 웨어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2nd 에디션'을 공개했다.

1일 LG전자에 따르면 'LG 워치 어베인 2nd 에디션'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없이 단독으로 LTE음성통화, 메시지 송수신 등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4.3(젤리빈)과 iOS 8.2 이상의 모든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하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원형 메탈 몸체와 몸체 측면에 3개의 물리버튼을 적용해 △연락처 검색(위) △앱 선택화면 진입(가운데) △LG헬스 앱 실행(아래) 등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존하는 스마트워치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해상도(480×480·348ppi)를 지원해, 화면을 더욱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LTE통신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570mAh'의 대용량 배터리도 탑재했다.

'LG 워치 어베인 2nd 에디션'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고릴라 글래스3' 강화유리 화면과 '스테인리스 스틸 316L' 몸체를 장착했다. 조금의 먼지도 통과되지 않고, 최고 1m 수심에서 30분까지 견딜 수 있는 'IP67' 등급의 방진·방수 기능도 탑재했다. /조한진 기자

LG 워치 어베인 2nd 에디션. /LG전자 제공

삼성전자 '美 클리오 광고제'서 첫 금상

'세이프티 트럭' 등 총 8개상 수상 쾌거

삼성전자가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끝난 '클리오 광고제'에서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2개 등 총 8개 상을 수상했다.

'클리오 광고제'는 '칸 라이언즈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 (이하 칸라이언즈·구 칸 국제 광고제), '뉴욕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금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클리오 광고제'에서 '파워슬립', 'S-드라이브' 등으로 은상 5개, 동상 5개 총 10개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금상을 수상한 '세이프티 트럭' 캠페인은 디지털과 옥외 부문에서 금상 2개를 수상했다. 또 다이렉트부문, 소비자 참여 부문, 혁신 부문에서도 은상 3개를 수상했다. 세이프티 트럭은 올 6월에 열린 '칸 라이언즈'에서도 타이타늄 1개, 금 3개, 은 3개를 수상한 바 있다.

'세이프티 트럭' 캠페인. /삼성전자 제공

홍원표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실 사장은 "소비자 삶의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념이 칸 라이언즈에 이어 클리오 광고제에서도 인정 받았다"며 "소비자의 삶이 보다 풍요롭게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한진 기자 hjc@

'기어S2' 오늘 국내 출시

삼성, 대규모 런칭 행사·체험존 진행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 S2(Samsung Gear S2)'를 2일 국내 출시한다.

'기어 S2'는 9월초 IFA에서 공개된 이후 원형 디자인과 휠을 돌려 조작하는 편리한 사용자 경험으로 소비자와 미디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실제 지난달 18일 글로벌 최초로 국내에서 한 사전 예약판매는 약 1시간만에 한정 수량 1000대가 모두 판매됐다.

'기어 S2'와 '기어 S2 클래식'은 삼성 디지털프라자, 롯데백화점 시계편집매장 '갤러리어클락', KT, LGU+ 대리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출고가는 '기어 S2' 33만3300원, '기어 S2 클래식' 37만4000원 이다.

'기어 S2'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워치 페이스를 지원한다. 전용 스트랩도 함께 출시해 패션 아이템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와 협업한 '기어 S2 멘디니 에디션' 스트랩 4종(블랙, 다크브라운, 네이비, 블루블랙)도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 위치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소비자들이 '기어 S2'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기어 S2는 국내 소비자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티머니'와 '캐시비' '골프나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과 금융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조한진 기자

삼성전자

'IoT 혁신 기업' 세계 2위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기업 중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2위로 평가됐다. 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미국의 미래혁신산업 분석기관인 WTVOX는 올해 3분기 기준 IoT 분야 혁신기업 순위를 최근 발표했다.

WTVOX 평가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는 전년도에 이어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 차지했다.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가 IoT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2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위에서 대폭 순위를 끌어 올렸다.

WTVOX는 "IoT 시대에 센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삼성전자는 웨어러블과 모바일 기기용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콤팩트한 임베디드 POP(package on package)와 바이오 프로세서 개발에 주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진 기자

폴크스바겐 사태 속 '전기차 시대' 성큼

LG화학, 중국 전기차 배터리 선점
삼성SDI, 유럽 시장서 경쟁력 우위

폴크스바겐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에너지 판도가 디젤에서 전기자동차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

기존 완성차업체가 아닌 한국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강화가 특히 눈에 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최근 첫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모델 X'를 출시했다.

모델 X는 시간당 90㎾의 배터리를 장착한 4륜구동 SUV다.

1회 충전에 90D 버전은 최대 414㎞, P90D 버전은 402㎞를 주행할 수 있다.

위로 열리는 '팰컨윙'(falcon-wing) 도어는 30㎝의 공간에서도 개폐가 가능하다.

센서를 장착해 손이 끼거나 옆에 주차한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

테슬라는 보급형 세단인 '모델 3'를 2017년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최근 중국 체리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LG화학은 체리자동차가 올해 말부터 양산할 수만대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6년까지 정부와 공공기관 신차의 30% 이상을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등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중국 친환경차 시장이 올해 약 11만대, 2020년 65만5000여대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LG화학은 올해 말까지 중국 남경에 연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공급이 가능한 배터리 공장을 준공, 내년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은 "세계 최대인 중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2016년 이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I의 주요 고객은 BMW와 아우디 등 유럽 자동차업체가 주축을 이룬다.

삼성SDI는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을 개시한 지난 2009년 이래 올해까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총 30여건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가운데 유럽지역 메이커의 수주가 50%를 넘는다.

삼성SDI는 지난 5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의 전기차 배터리 팩 사업을 인수하면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조남성 삼성SDI 사장은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에 우리의 기술 로드맵과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며 "배터리 기술의 진보를 통해 주행거리의 혁신을 앞장서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2015 아트드림 지역아동극 '종이아빠' 출연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지역 아동들 모여라!"

현대차그룹 '아트드림 지역아동극축제'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은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2015 아트드림 지역아동극축제'를 연다.

아트드림 지역아동극축제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에게 아동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창의력과 감성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문화 축제다.

현대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가 후원하는 이 축제는 2008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해까지 누적 관람객 수가 5만명이 넘는 등 지역사회의 높은 호응에 따라 지난해 10개 도시에서 올해 14개 도시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아동극에 출연해 기존공연에 신선함을 더한다.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로 구성된 '영덕 조이풀 어린이 합창단'은 10월 16~17일 경상북도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극단 21'과 함께 '환타지 오즈의 마법사'를 공동 공연한다.

또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오산시, 논산시, 담양군에서는 덴마크 '바티다 극단'의 대표극 '오버추어'가 공연된다.

오버추어는 오케스트라 형식의 무언극이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관람을 희망하는 단체·개인은 대표 문의처인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02-745-5863) 혹은 각 지역 극장을 통해 예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국내 완성차 5사, 9월 내수 판매 증가

개소세 인하·신차 효과
해외 판매는 명암 엇갈려
현대 아반떼 판매량 1위

현대차 아반떼.

국내 완성차 5사가 9월 국내 시장에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과 신차효과 등에 힘입어 판매량이 증가했다.

1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달 국내 5만1954대, 해외 34만2907대 총 39만4861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해외 판매는 각각 8.7%, 0.2% 증가했다. 아반떼가 신형 모델 5667대를 포함해 총 8583대가 판매됐다. 아반떼는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차종별 판매 1위에 오르며 실적을 견인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달 국내 4만5010대, 해외 18만5120대 등 총 23만13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 판매는 16.6% 증가했고 해외 판매는 4.4% 줄었다. 국내 판매는 개소세 인하와 쏘렌토, 스포티지와 같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인기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해외 판매는 중국공장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한국지엠은 이달 국내 1만6393대, 해외 3만5109대 등 총 5만1502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해외 판매는 각각 24%, 0.5% 증가했다. 국내 판매는 스파크, 임팔라, 소형 SUV 트랙스 등이 견인했다. 스파크는 이달 6214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했다. 임팔라는 1634대가 판매됐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달 국내 6604대, 해외 1만5551대 등 총 2만2155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해외 판매는 각각 10.9%, 47.7% 늘었다. 국내 에서 QM3가 전년 동기 대비 220.7% 증가한 2306대가 팔려 자사 모델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해외 판매는 QM5(수출명 꼴레오스)가 1932대로 전월보다 305.9% 증가해 실적을 견인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달 국내 8106대, 해외 3383대 등 총 1만1489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 판매는 59.1% 늘었고 해외 판매는 36.4% 줄었다. 국내 판매는 티볼리 디젤과 더불어 SUV 전 라인업이 유로6 모델로 업그레이드 되는 등 시장 대응을 통해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r

현대重, 고효율 전지로 태양광 시장 공략 강화

펄 타입 생산라인 전환
연간 200MW 전지 생산

현대중공업은 내년 초까지 일반 태양전지 생산라인을 펄 타입(국부 후면전계 태양전지)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생산라인 전환은 기존 일반 태양전지 생산라인에 펄 타입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환이 완료되면 현대중공업은 연간 200MW 이상의 펄 타입 태양전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태양광 공장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펄 타입 태양전지는 후면에 표면 결함을 줄여주는 박막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 태양전지에 비해 평균 효율이 1% 포인트 가량 높은 제품이다.

태양광 모듈은 여러 개의 태양전지를 결합해 제작하는데 펄 타입 태양전지로 제작한 모듈은 일반 모듈에 비해 동일한 면적에서 5% 가량 많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고효율, 고출력의 모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펄 타입 태양전지 생산라인 증설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2010년부터 고효율 태양전지 시장 공략을 위해 펄 타입 태양전지의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하며 기술을 축적해 왔다.

현대중공업 측은 "태양광 시장은 선진국들의 공급확대 기조가 유지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KT "입대 후에도 내 폰번호 그대로 쓰세요"

군인 전용 요금제 출시

국내 약 50만 명의 병사들이 공중전화에서도 전화를 걸어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표출되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가족, 친구, 연인들과 연락할 수 있게 된다.

KT는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부대 내 군 전용전화, 공중전화로 걸어도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표시해주고, 매월 무료통화, 휴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올레 나라사랑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레 나라사랑 요금제는 복무중에 군부대 KT 유선전화를 통해 전화를 걸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상대방에게 전화가 걸리도록 하고 PC로 문자를 송수신하며 복무 기간동안 무제한 데이터를 이월할 수 있는 군인 전용 요금제다.

또 매월 이용 요금의 10%씩 추가 적립된 나라사랑 포인트로 통신요금·단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제는 월 1만4900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으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200MB(메가바이트), 문자 300건을 제공한다.

KT 관계자는 "이 요금제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월 약 4만원에 이른다"며 "지난 5월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 병사 1인 평균 통신비가 1만9000원에 달하고 국군내 KT 유선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사가 한달 30분 통화 기준 평균 2만1000원이 나온 것에 비해 통신료 부담을 낮췄다"고 밝혔다.

요금제 가입한 병사는 부대 내에서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해 부대 내 군 전용전화와 공중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중에는 본인 휴대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문자 사용 시에는 부대 내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올레닷컴'에 접속하면 문자 송수신이 가능하다.

복무기간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는 매월 자동 이월돼 휴가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령 정기 휴가를 5개월 만에 나올 경우 누적된 1GB의 휴가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요금제 신청과 문의는 올레 모바일에서 114, 유선 전화에서 100에서 하면 된다. 고객 편의를 위해 매일 저녁 8시까지 전용 콜센터(080-080-0028)도 운영한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세계군인체육대회서 ICT 기술 뽐낸다

SKT, 11일까지 체험 홍보관 운영

SK텔레콤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기간에 맞춰 10일간 문경 국군체육부대 내에 정보통신기술(ICT)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홍보관을 첨단 IT 기술로 구현된 스포츠 경기장인 '테크아레나(Tech. ARENA)'로 꾸몄다. 홍보관은 가로 가로 20m, 세로 20m, 총 면적 400㎡에 달하는 체험형 전시관 형태다.

방문객은 ▲보폭을 정밀하게 계산해 주는 센서가 적용된 발판에서 펼쳐지는 사이버 달리기 ▲동작·영상 인식 카메라를 활용한 블록 깨기 ▲초정밀 측위 기술을 활용해 축구공의 이동 궤적을 분석해 주는 드리블 사커 등 가상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또 ▲UO 스마트빔, UO링키지 등 SK텔레콤의 라이프웨어 제품 ▲IoT 기술로 구현될 미래 ICT 세상인 4D 라이더 등 첨단 ICT 제품

및 서비스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군인 선수, 대회 관계자, 일반 관람객들이 우리나라의 ICT 기술력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대회가 열리는 경상북도 8개 시군에 유무선 통신망을 점검·추가 구축했다. 경기장과 선수촌 등 1000여 곳의 AP 장비 신규 구축을 마쳤다. 대회 기간에는 하루 400여 명 이상의 네트워크 관리 전문가들을 투입해 IT상황실(ITCC)에서 대회 현장 곳곳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실시간 대응·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SKT, 상향링크 다중안테나기술 시연 성공

업로드 속도 40% 향상

SK텔레콤이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에릭슨과 함께 데이터 업로드 속도를 향상시키는 최신기술인 '상향 링크 다중안테나 기술'을 국내 시연하는데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중국 베이징 소재 에릭슨 R&D센터 인근 노상에서 LTE 기지국에 8개의 수신 안테나를 탑재해 '상향링크 다중안테나기술' 적용 후 다수의 단말기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업로드 해보는 방식으로 시연을 진행해 기존 업로드 속도 대비 평균 40% 정도의 속도 향상을 확인했다.

SK텔레콤 구성원들이 LTE 기지국에 데이터 업로드 속도를 향상시키는 최신기술인 '상향링크 다중안테나기술'의 성능을 테스트 중이다. /SK텔레콤 제공

상향링크 다중안테나기술은 LTE 기지국에 다수의 수신 안테나를 탑재해 업로드 전송 속도를 개선한다. 기지국에 탑재하는 안테나의 수를 늘려 속도를 배가하는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어 기지국 탑재 수신 안테나가 8개라고 할 경우 이론상 기존 대비 최대 8배까지 업로드 속도를 늘릴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시연 성공이 모바일 개인 방송 확대 추세나 대용량의 사진·동영상 전송 확산 등 업로드 중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은 "상향링크 다중안테나기술은 기지국에 새로운 수신 안테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단말 교체 없이 기존 단말로 즉시 업로드 속도를 늘릴 수 있어 다수의 고객들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한화 큐셀

美서 환경부문 주지사상 수상

한화큐셀은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아나폴리스에서 환경부문 인디애나주 주지사 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2014년 4월에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시 메이우드지역에 10.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다.

이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된 부지는 미국연방 환경청(USEPA)이 지정한 환경오염부지중 하나로 환경개선 작업이 완료된 이후 모니터링 대상 지역이었다.

한화큐셀은 환경오염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태양광발전이 환경오염으로 버려진 부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아 인디아나주로부터 주지사상을 받았다.

차문환 한화큐셀 미국법인장은 "한화큐셀은 장기간 버려진 오염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노하우를 가지게 됐으며 이번 인디애나 주정부의 환경부문 수상은 미국 내에서 친환경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화학품 오염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역 등에 태양광발전소 건설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LGU+, 퀄컴과 사물인터넷 중소기업 육성 나서

스타트업 발굴·50만달러 지원

이동통신 사업자 LG유플러스와 디지털 무선통신사업자 퀄컴이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총 5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와 퀄컴은 2년 동안 5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별 10만 달러씩, 총 50만 달러를 지원하는 IoT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퀄컴과 추진하기로 했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IoT개발 지원' 펀드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IoT

김선태 LG유플러스 SD본부장(왼쪽)와 데렉 에벌리 퀄컴 사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시장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또 LTE 기반의 IoT 경험이 풍부한 LG유플러스의 노하우와 퀄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망한 IoT 중소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내겠다는 포부다.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데렉 에벌리 퀄컴 사장은 LG유플러스를 방문, 이상철 부회장을 만나 IoT 확산을 위한 개방형 에코 시스템과 IoT서비스 개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태 LG유플러스 본부장은 "퀄컴과 미래 IoT기술을 선도할 것"이라며 "새로운 IoT세상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글로벌 회사들과 함께 IoT에코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손보사 8월 실적 호조에 주가흐름 '양호'

5사 당기순익 1698억 전년 동월比 14.4%↑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8월 실적이 호조로 나타나면서 보험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장기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이 순이익을 끌어올렸다. 다만 동부화재는 증시 불안에 따라 투자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홀로 약보합 마감했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메리츠화재는 전거래일 대비 1.89%(300원) 오른 1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손해보험은 전일보다 1.09%(80원) 상승한 7440원, 삼성화재도 1.07%(3000원) 오른 28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장중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삼성화재는 장 초반 약세에서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 나란히 1%대 상승률을 보였다.

현대해상(0.66%)과 KB손해보험(0.42%)은 강보합권을 형성했다.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이한 KB손해보험은 미주법인 투자정책 불확실성 등에 장 내내 0%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장 후반 힘겹게 상승 전환했다.

동부화재는 전일 대비 0.16%(100원) 떨어져 6만1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급락해 5만82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였다.

이들 손보사의 8월 실적 성적표는 대체로 좋았다는 평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투자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등 보험사별 성적은 엇갈렸다.

회사별로 삼성화재는 지난해 8월보다 23.8% 증가한 76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삼성화재는 일반보험에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보험료 축소로 보험료 수입이 전년 대비 6.6% 감소했지만 장기보험위험손해율은 전월보다 1.9%p 내려 손실이 보전됐다. 투자영업이익률은 3.3%로 전월 대비 0.3%p 내렸다.

같은 기간 동부화재 순이익은 11.1% 증가한 402억원을 기록했다.

동부화재의 전체 손해율은 85.2%로 전월 대비 1.5%p 낮아져 양호했지만 투자영업이익률은 3.6%로 전월 대비 0.4%p 하락했다.

현대해상 순이익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7% 오른 232억원을 기록했다.

현대해상의장기보험위험손해율은 87.4%로 전월 대비 4.6%p 개선됐으며 투자영업이익률은 3.63%으로 전월(3.67%)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KB손해보험의 8월 순이익은 178억원에서 100억원으로 44% 급감했다. 매출액은 7270억원에서 7432억원으로 2.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50억원에서 155억원으로 38% 줄었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에서 위험손해율이 전월 대비 4.9% 내려 큰 폭 개선됐지만 일반보험 손해율이 115.8%로 전체 수익성을 깎아내렸다. 투자영업이익률은 3.1%로 3개월 연속 3퍼센트 초반대 부진이 지속됐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KB손해보험은 예상보다 미주법인 손실이 크고 해소 시기가 지연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지점의 보험금 부담이 지속되며 일반보험 손해율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연속된 평가 및 처분손실 인식으로 부진한 투자이익도 지난 3개월 동안 지속됨에 따라 2015년 및 2016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면서 KB손해보험의 목표가를 3만7000원으로 낮춰 잡았다.

이들 4대 손보사 외 메리츠화재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메리츠화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4631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96억원으로 58.5% 급증했다.

메리츠화재의 보장성 위주 장기 신계약이 전월 대비 33.5%로 크게 늘어난 데다 투자영업이익률도 다른 보험사들보다 월등한 5.6%를 기록했다. 다만 장기위험손해율은 손보 5사 중 유일하게 0.4%p 상승해 86.3%로 나타났다.

정준섭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8월 손보 5사 당기순이익은 1698억원으로 전월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보다는 증가했다"며 "8월 영업일수가 감소하면서 장기위험손해율이 전월보다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 가을맞이 모바일 이벤트 '시월愛 가을여행' 신한금융투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으로 주식 또는 ETF를 매매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일일 거래금액 1000만원 이상 50명, 1억원 이상 10명을 추첨해 최고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하고, 주간 거래금액 순위 1~3위에게는 20만원, 10만원, 5만원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1588-0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제공

인터넷전문은행 경쟁 3파전

예비인가 신청서 마감 카카오·인터파크·KT 참여

3개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이들 컨소시엄에는 금융기관은 물론 통신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업체들과 유통, 게임, 핀테크 업체와 중국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까지 포함해 모두 45개 업체가 참여했다.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도 합류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는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 인터파크컨소시엄(아이뱅크·I-BANK), KT컨소시업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애초 참여의사를 밝혔던 500V컨소시엄은 이번에 내지 않고 은행법이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2단계 인가신청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

3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총 45개다. 카카오에 11개, 인터파크에 15개, KT에 19개다.

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을 3대 축으로 총 11개사가 참여했다.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인 텐센트 외에 G마켓과 옥션 등 국내 오픈마켓 상거래에서 최고 점유율을 가진 이베이도 주주명단에 들어갔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까지 가세했다.

인터파크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과 NHN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금융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기업은행과 국내 최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현대해상,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등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이 망라됐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인터파크, GS홈쇼핑, BGF리테일(편의점 씨유) 등 유통업체들도 많이 참여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증권 마감시황

중국 경제지표 호전… 코스피↑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등과 중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1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1포인트(0.84%) 오른 1979.32를 기록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중국이 예상치를 웃도는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다.

중국 9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는 47.2로 전망치를 웃돌았다. 지표는 경기 둔화와 확장을 결정하는 기준선 50에는 못 미쳤지만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일에 이어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1045억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697억원 사들였다. 개인 홀로 3075억원 순매도 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4.27% 급등했다. 기계는 3.57%, 음식료품은 2.36%, 운송장비는 1.77% 올랐다. 반면 의료정밀(0.62%), 유통업(0.41%), 통신업(0.29%)은 약보합권을 형성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였다. NAVER는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6.43% 상승했고, 삼성물산(4.78%), 현대차(2.44%)도 상승폭이 컸다. 반면 삼성생명은 0.61%, SK텔레콤은 0.57%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1포인트(0.93%) 오른 684.79을 기록하면서 사흘 만에 상승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3억원, 110억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22억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가 3.56% 상승했고 금융, 건설, 인터넷 등은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섬유의류(-1.32%), 운송(-1.13%), 통신장비(-0.43%) 등은 내렸다.

시총 상위 종목 중 바이오메드는 6.69% 상승했고, 다음카카오는 1.19% 오르며 시총 1위를 탈환했다. 반면 동서는 1.77%, 웹젠은 1.25%, CJ오쇼핑은 0.97% 떨어졌다. /김보배 기자

1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 날 코스피는 16.51p(0.84%) 오른 1979.32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어르신 2.5%p 우대금리 활용하세요”

금감원, 상품·유의점 안내

운전자 보험료 5% 할인도 “약관·위험 꼼꼼히 따져야”

은행과 보험사 등 상당수의 금융사가 고령자를 위해 0.1~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고령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적극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고령자 우대상품 현황에 따르면 삼성, 한화, 메리츠, 롯데, 현대, LIG, 동부, 더케이 등 8개 손해보험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종전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최대 65세 내외로 제한되다가 지난해 8월부터 삼성, 동부, 메리츠 등 11개 사에서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했다. 또한 보험료가 보다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고령자를 위한 우대 상품이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면서 “다만 보험이나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사전에 약관이나 투자위험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퇴 후 저축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노인의 경우 고수익에 현혹돼 투자한 뒤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중이다. 금융전문가들이 고령자에게 노후자금,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대면상담은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전화상담은 콜센터(전화 1332 → 7번 금융자문서비스)에서 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보험 보장내역이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상해 보험금만 있고 질병보장 등이 없거나 만기환급금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해 가입 때 병력 고지가 잘못됐다며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모른 채 고수익에만 현혹돼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품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장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청약서·청약녹취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보험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전화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질문을 이해하고 답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쉬워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어서다. 가입 전에 갱신거절 사유 유무를 약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에 앞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좌 관련 정보와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 고령자 우대금리 적용 상품 및 서비스 /자료=금융감독원

은행	금융상품(서비스)명	주요 내용	적용 연령
농협	NH희망채움통장	– 매일의 잔액 1백만원 이내(1.0%) – 각종 수수료 면제	만65세 이상
	NH희망채움 적금	– 기본금리(기본금리+1.0%) – 기간별우대금리적용(1.5~2.5%)	만65세 이상
수협	노년층 고객콜센터 상담서비스	– 노년 은행 텔레뱅킹 이용시 상담원을 통해 편리하게 이체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당행이체시에는 수수료면제. 타행이체시에는 건당500원 횟수제한 없음)	만70세 이상
산업	창구수수료면제	– 창구(자행환 및 타행환) 송금수수료 면제	만60세 이상
국민	수수료감면	– 타행송금수수료(10만원 이하 : 100원 할인,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00원 할인, 100만원 초과 : 500원 할인)	만65세 이상
신한	미래설계통장	– 연금수급시 : 연1.25% – 연금수급 + 교차거래 : 연1.75%	만61세 이상
	월복리정기예금	– 가입시점 만60세 이상 : 연0.1% 우대	만60세 이상
	새희망적금	– 기본 : 연4.25% – 가산금리 : 1.5%	만65세 이상
우리	우리희망드림적금	– 월 최고 20만원 납입가능 – 기본이율 2% + 만기해지시 2.0%p 우대	만65세 이상
하나	행복knowhow 주거래우대통장	– 각종 연금(4대연금, 보훈연금, 기초연금)수급시 금리 및 수수료우대(전자금융수수료–무제한,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및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만61세 이상
	수수료감면	– 창구송금수수료(타행환) 50% – CD/ATM당행카드이용수수료(출금) 50%(당행기기이용) – 매직뱅크이용수수료(편의점ATM출금)50%	만65세 이상
대구	할매할배예금/적금	– 예금 : 연0.25%p (연금입금실적 보유 등) – 적금 : 연0.40%p (연금입금실적 보유 등) – 특별우대이율(세대공감우대이율) 3세대 이상 동일한 세대에 거주 : 연0.2%p / 2세대 이하 동일한 세대에 거주 : 연0.1%p	만65세 이상
	할매할배예금(연금형)	– 3세대 이상 동일한 세대에 거주: 연0.2%p – 2세대 이하 동일한 세대에 거주: 연0.1%p	만65세 이상
부산	실버프리미엄정기예금	– 가입연령별로 우대이율 제공 – 3천만원이상 가입고객에게 건강상담, 병원예약, 건강 정보서비스제공(오픈타이드코리아제휴)	만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	– 부산시마이비카드사와 협약하여 어르신교통카드 무료 발급대행 (부산시지하철무료이용)	만65세 이상
전북	실버보금자리예금	– 적용이율 : 시장금리부정기예금 1년만기고시이율+영업점장 전결 최고 가산금리+0.1% 이하 – 예금담보대출 : 예금금리 + 1.0%p 적용 – 수수료면제 서비스	만60세 이상
제주	수수료면제서비스 (수신수수료)	– 제증명서발급수수료, 통장증서 재발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보호예수 이용수수료 및 대여금고 이용수수료 면제	만60세 이상
	제주드림정	– 비과세종합저축대상자 0.1%p 우대금리 제공	만65세 이상
	이어도사랑적금	– 비과세종합저축대상자 0.1%p 우대금리 제공	만65세 이상

국감 선서하는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과 기관 증인들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 팔고 지방가면 노후자금 2억원 마련

NH증권 100세 시대 전략

은퇴자들이 집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때 지방으로 이사하면 평균 2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행복 리포트 ‘부동산을 노후동산으로 만드는 방법’에서 부동산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만드는 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고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1억8600만원의 여유자금이 발생, 이를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여유자금은 월지급식 펀드나 ELS, 즉시연금, 수익형 부동산 등으로 연금화할 수 있다.

만약 지방으로 이사하지 않고 살던 지역 내에서 집 크기만 줄여 이사할 경우에는 평당 1100만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집을 아예 매도하고 전세 등으로 주거형태를 바꾸면 전국 평균 1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발생한다. 이사를 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bobae@

보험상품 가격규제 없어진다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 상품 가격 통제 장치도 정비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없어지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표준약관제도는 전면 재정비된다. 소비자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질병·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감독규정상에서 규제하는 각종 상품 설계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대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경우 상품 변경권고뿐 아니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차기태 기자

8월 산업생산 예상 밖 증가

6월부터 3개월 연속↑

전체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소비도 2개월째 늘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8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올 들어 월별 산업생산은 지난 3월(–0.5%)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6월(0.6%)과 7월(0.5%)에 이어 3개월 연속 늘어났다.

8월중 광공업 생산이 예상 밖으로 증가한 데다가 소비 부문이 메르스 후유증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다.

수출에서는 통신·방송장비(47.1%), 전자부품(9.4%), 반도체(6.6%) 등이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15.8%), 기타운송장비(–3.6%), 금속가공(–3.1%) 등에서 부진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0.1% 증가했고 제조업 재고율은 128.4%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0.4%포인트 하락한 74.3%를 나타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1.9% 증가했다.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의복 등 준내구재(4.4%)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2.8%), 화장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모두 늘었다. 소매업태별로는 승용차·연료소매점(10.5%), 편의점(10.4%), 무점포소매(2.2%), 슈퍼마켓(1.4%)은 증가했고 대형마트(–8.8%), 백화점(–6.6%)은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라갔다.

/차기태 기자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발코니 넓힌 아파트 '키높이'로 3차 진화

5~20㎝ 높인 3차원 평면 일조량·공간활용 극대화 '천장' 높이기 경쟁 치열

4베이 평면이 보편화되면서 넓어질 대로 넓어진 세대면적에 천장을 높여 다시 위아래로 늘리는 3차원 공간마케팅이 한창이다.

4베이는 거실과 방 세 개에 모두 발코니가 있어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주거전용공간을 많게는 30㎡정도 넓힐 수 있는 혁신평면이다. '국민평면'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화되면서 현재 5베이, 6베이까지 생겨났다.

3차원 평면은 창을 키워 조망과 일조량을 늘릴 수 있고 집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일반아파트의 천장 높이는 평균 2.3m 정도다. 하지만 최근 천장이 높을수록 집이 넓어보인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천장 높이기 경쟁이 심하다.

기준 대비 5~20㎝까지 천장을 높인 아파트가 공개되고 있다. 이달 분양을 앞둔 6800가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초소형 주택을 제외한 전가구 천장을 무려 2.55m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비롯해 최근 4베이 설계와 천장을 높인 공간마케팅을 적용한 단지가 늘고 있다.

대림산업이 이달 경기도 용인시에 분양할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거실에 일반 천장보다 높게 설계된 우물천장을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은 이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67개 동 6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44~103㎡로 구성되며 판상형 4베이나 5베이 등 평면구조가 다양하다.

일반아파트 천장 높이는 2.3m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보다 높은 2.45m의 천장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2.55m 우물천장(거실에 일반 천장보다 높게 설계된 천장)까지 적용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주차장 특화 설계도 도입된다. 이 단지의 주차장에는 기존 아파트의 주차공간보다 넓은 2.4~2.5m 확장형 주차공간이 대부분 적용되고 주차 구획도 기둥과 기둥 사이에 1~2대만 주차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일건설은 18일 인천 가정지구 4BL에 '가정 4BL 제일풍경채' 아파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전가구 4베이 평면 설계가 도입되며 판상형과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좋다.

특히 전가구 천장을 10㎝높였으며 거실과 우물천장의 경우 20㎝가 높다. 청라~서울강서 간 BRT노선이 가까우며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가칭)이 내년 개통(예정)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전용 74·84㎡ 900가구 규모다.

한신공영은 10월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에서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를 분양한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와 84㎡로만 구성된 중소형 테라스타운이다. 일반 아파트 천장 높이인 2.3m보다 높은 2.4m가 적용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운양역(2018년 개통 예정) 역세권에 있어 역을 통해 강남과 서울 주요지역으로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또한 한강신도시 IC 초입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도 편리하다.

유승종합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진건보금자리주택지구B-7블록에 '다산신도시 유승한내들 센트럴'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5개동 642가구 규모다.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74㎡와 84㎡ 중소형으로 구성되고 실용적인 4베이 구조와 높은 천장 높이로 개방감을 높였다. 또 8호선 연장선인 진건역(가칭)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대림산업은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서 'e편한세상 평택용이'를 분양중이다. 1블록에 위치한 아파트14개동, 2블록 아파트 6개동 20개동 전용 72~99㎡ 1348가구 규모다. 전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84㎡ D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4베이 평면으로 설계했다. 또 기존 아파트보다 천장높이를 10㎝ 높여 2.4m까지 확대했다. 수서~평택간 KTX 지제역(2016년 예정)과 경부고속도로 안성IC가 단지 가까이에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LH, 울릉도서 8년 만에 국민임대 추가 공급

내년 9월 110가구 규모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2007년 울릉도 울릉근 저동에서 첫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8년 만에 국민임대주택 추가 공급에 나선다.

LH는 최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와 서면 남서리, 북면 천부리 등 3개 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 110가구의 착공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독도지킴이 사업의 일환이다.

저동 국민임대는 2008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2009년 8월 연면적 4287㎡, 지상 4층짜리 6개동, 71가구 규모로 완공돼 운영 중이다.

울릉읍 도동리에는 지상 6~8층짜리 2개동 규모로 21~46㎡ 면적의 국민임대 72가구가 건설된다. 또 남서리에는 지상 4층 높이의 21㎡ 22가구, 천부리에는 역시 4층 규모의 21㎡ 16가구가 건설된다. LH는 이 주택이 완공되면 308명(가구당 2.8명)의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비는 227억원이며 용지비 13억원은 울릉군이 지원하고 조성비 7억원과 공사비 등 219억원은 LH가 조달한다. 2017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내년 9월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LH와 울릉군은 해당 지역의 어민과 농민 등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건설사 체감경기 '싸늘' 올 처음 2개월 연속 ⬇

건설사의 체감 경기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9월 건설사의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보다 4.4포인트 하락한 87.2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CBSI는 지난 7월 기준선(1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한 뒤 8월(91.6)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규모별로는 대형기업 지수가 전월 대비 7.7포인트 하락해 100,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7.9포인트 하락해 64.6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은 2.0포인트 상승한 93.9를 기록했다.

통상 9월에는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7월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여름철 이후 다소 조정기를 거치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편 10월 CBSI 전망치는 9월 실적에 비해 0.5포인트 높은 87.7로 예상됐다.

위례신도시 軍 이전 연기… 아파텔 반사이익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청약 견본 오픈 7일새 70% 완료

위례신도시가 군부대 이전 연기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잠정 중단되자 주거형 오피스텔인 아파텔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등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 인터넷 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대우건설이 6월 분양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1개 단지 620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기무사 등 위례신도시에 있던 군부대 이전이 늦춰지면서 분양 예정 가구의 분양시기가 2018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자 초기 고전을 면치 못했던 아파텔과 뉴스테이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견본주택 문을 연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는 견본주택 문을 연 일주만에 70% 가량 계약을 마쳤다. 또한 지난해 말 공급에 나섰던 위례 한화 오벨리스크 주거형 오피스텔은 현재 100% 계약이 완료됐다.

이외에도 올 초 공급에 나섰던 주거형 오피스텔 '위례 우남역 KCC웰츠타워'도 분양 초반에는 다소 고전했지만 현재 계약률 98%로 견본주택 철거를 준비 하는 등 사실상 분양을 마감하는 분위기다.

위례신도시 공급 단지

단지명	전용(㎡)	총 가구수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시티	19~74	434
위례 보미리즌빌*	96~112	131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84	360

*는 아파트, **는 뉴스테이

◀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투시도.

하반기에는 현재 공급 중인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잔여물량과 위례 보미리즌빌(131가구) 등이 공급된다.

대우건설은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 중이다. 위례신도시 일반상업3블록 1-2, 1-3부지에 있으며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138실), 오피스텔(전용면적 19~74㎡, 434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투룸과 4인 생활까지 가능한 스리룸으로 구성했다. 일부 가구는 2면 개방형 구조를 선보여 자연환기는 물론 조망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위례신도시 내 8호선 우남역(예정)과 트램(예정) 정거장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좋은 편이다.

보미종합건설은 아파트 마지막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달 C2-1블록에서 '위례 보미리즌빌' 131가구를 분양한다. 전용 96~112㎡ 중대형 물량이다. 전가구 4베이 남향 위주의 배치로 조망과 통풍이 우수하다.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이 걸어서 5분 거리로 개통시 신사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친환경 보행로인 휴먼링 안에 있으며 수변공원과도 가깝다.

뉴스테이 물량도 있다.

대림산업은 11월 위례신도시 A2-14블록에서 전용면적 84㎡ 규모에 테라스를 갖춘 뉴스테이 360가구를 공급한다. 테라스하우스인 이 아파트의 타입별 임대보증금은 4억원 초반~5억원 후반이며 월세는 동일하게 44만원선에서 결정된다. /박상길 기자

선선한 가을엔 달콤한 디저트

파리바게트 등 외식업계
초콜릿·에스프레소 활용
고급스런 메뉴 속속 출시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면서 국내 커피·디저트 업계가 초콜릿과 에스프레소 등을 활용한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디저트 메뉴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카페 아다지오 커피와 생크림, 마스카포네 치즈가 만나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는 냉장 롤케이크 '카페 아다지오 롤'을 선보였다. 부드러운 바디감과 섬세한 산미, 카라멜과 바닐라의 달콤한 향미와 깔끔한 후미 등 4가지 맛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특히 카페 아다지오 롤은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커피 바리스타를 콘셉트로 디자인한 '미스터 카페 아다지오' 캐릭터로 디자인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파리바게뜨의 '카페 아다지오 롤'

뚜레쥬르는 단맛을 내는 프랑스빵 브리오슈 안에 초코크림과 초코칩을 듬뿍 넣어 달콤하게 즐기는 간식을 내세운 '빵속에 리얼초코'를 신제품으로 선보였다.

MPK그룹이 운영하는 마노핀은 최근 초콜릿의 진한 달콤함이 돋보이는 '초코 쉬폰머핀'과 신선한 우유를 넣어 달콤하게 구워낸 '오리진 쉬폰머핀' 등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블랙빈 소이라떼', '아몬드 초코 소이라떼', '티라미슈 라떼' 등 촉촉한 머핀과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라떼 3종도 내놨다.

망고식스는 크림을 넣은 커피, 케이크 등 달콤한 디저트 4종을 출시했다. 대표 메뉴인 크림티라미수라떼는 리스트레토(Restretto)로 뽑은 커피 위에 커스터드 크림을 올린 부드럽고 달콤한 라떼. 크림 위에는 코코넛 파우더로 마무리해 커스터드의 매력을 고스란히 살렸다.

리스트레또는 커피의 기본이 되는 에스프레소를 단시간에 추출했다. 원두의 산미와 단맛을 높여 기존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진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할리스커피는 지난해 9월에 가을용으로 처음 출시했던 리스트레또 라떼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전국 470여개 매장에서 취급하는 음료메뉴로 출시했다. 또 우유와 크림치즈를 넣었던 리스트레또 라떼를 한 단계 발전시켜 아몬드우유를 첨가한 리스트레또 크림라떼 3종을 올 가을 한정으로 선보였다.

디초콜릿커피앤드는 커피 원두를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에 초콜릿을 가득 녹인 초코프레소 3종을 내놨다. 음료는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시럽 같은 첨가제 없이 초콜릿만을 순수하게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기온이 떨어지면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며 "진한 초콜릿과 담백한 유럽빵 맛은 깊고 풍부해 가을에 즐기기 좋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500억 규모 '김치냉장고 특가전'

롯데하이마트, 31일까지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437개 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500억원 규모의 김치냉장고를 특가 판매하는 '김치냉장고 대전' 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100여 종의 김치냉장고를 할인판매하며 행사기간에 하이마트 독점 상품 기획전, 2015년형 인기모델 특가전, 2016년형 신제품 특가전 등 다양한 기획전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독점 상품 기획전에서는 대우위니아,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의 김치냉장고 각 1종을 1000대씩 독점 기획해 특가 판매한다.

인기모델 특가전에서는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인 대우위니아 딤채 221리터 김치냉장고를 81만원에, LG전자 327리터 스탠드형 제품을 14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또 2016년형 신제품 특가전에서는 각 제조사의 66만원대 김치냉장고에서 300만원대 대용량 프리미엄 김치냉장고까지 만나볼 수 있다.

/김성현 기자

현대百, 오늘부터 업사이클링 전시회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이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에 나선다.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품에 디자인과 기능을 더해 내놓는 것을 뜻한다.

현대백화점은 2일부터 4일까지 목동점 7층 토파즈홀에서 '쓰임을 다한 자원들의 두 번째 생일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환경부, 서울특별시가 함께 한다.

국내외 업사이클 디자이너와 브랜드 약 40개 팀이 참가해 2340점가량의 제품과 작품을 소개한다.

매일우유 '노인의 날' 기념 우유 2만개 지원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은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총 2만 개의 우유를 노인들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업해 2일 금요일에 서울시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 33곳에 각각 500개의 우유 제공, 총 1만6500개의 우유를 무상으로 배급한다. 또 다가오는 27일에는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2015 어르신 생활체육경연대회'에 3500개의 우유를 전달할 예정이다.

매일유업이 이번에 무상 지원하는 우유는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로, 국내 최초로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우유(lactose-free) 제품이다. 우유 섭취 시 소화가 어렵거나 속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인 유당(lactose, 락토스)만 말끔히 제거하고, 우유 본연의 맛과 영양소는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롯데제과, 꼬깔콘 누적 매출 1조원 돌파

롯데제과(대표 김용수)는 꼬깔콘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꼬깔콘은 1983년 첫 시판 때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32년간 판매된 매출이 1조860억원을 기록했다.

꼬깔콘이 거둔 매출 실적을 개수로 환산하면 약 23억 봉지에 달한다. 이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 둘레를 약 15바퀴 돌 수 있다.

롯데면세점, 계열사와 태국 관광객 유치 나서

한국문화관광대전 참여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은 그룹 관광계열사인 롯데호텔, 롯데월드어드벤처와 함께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태국 방콕 로얄 파라곤홀에서 열리는 '한국문화관광대전'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롯데가 후원하는 해외관광박람회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단체여행객 유치가 목적이다.

한국문화관광대전에서 롯데관광3사는 '롯데트래블마켓존'을 운영한다. 마켓존에서는 면세점과 호텔, 월드타워, 어드벤처 등 3사가 보유한 관광 콘텐츠와 국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에는 롯데면세점 모델인 태국 출신의 아이돌가수 닉쿤(2PM)의 한국관광홍보대사 위촉식도 갖는다. 또 롯데호텔 모델인 그룹 VIXX의 콘서트와 한류스타들의 애장품 증정 이벤트 등 한류 스타 마케팅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문화관광대전에는 한국과 태국의 여행 관련 기업과 대학 70여 곳이 참가한다. 롯데면세점은 태국 현지인 방문객이 1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김윤 "창립 91주년… 성공의 역사 넘어 재도약"

삼양그룹, 선자령 기념 산행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임직원 각자가 창의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김윤(사진) 삼양그룹 회장은 1일 창립 91주년을 맞아 임직원 등 150여 명과 선자령을 등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7시 삼양그룹 본사를 출발한 일행은 10시부터 선자령 등산을 시작해 신재생에너지전시관 – 하늘목장 – 선자령 – 동해전망대·대관령마을휴게소로 이어지는 총 12km를 등반했다.

삼양은 수당 김연수 회장이 산업보국의 뜻을 품고 1924년 창업한 이래 정도경영과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2011년에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업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식품 계열사를 통합하고 용기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 미쓰비시화학과 차세대 이온교환수지 회사 설립, 옥수수로 만드는 친환경플라스틱 원료인 이소소르비드 상업생산 성공, 자동차 경량화 소재 사업 추진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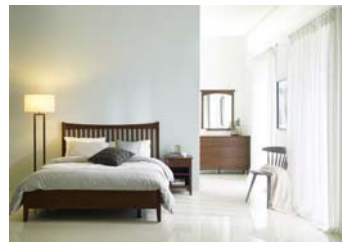
특히 2014년에는 창립 90주년을 맞이해 '글로벌 사업 확대'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수립해 힘찬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은밀하게 편안하게… 신혼의 밤 책임진다

가을 결혼 성수기… 가구업계 "신혼부부 잡아라"

수면공간 넘어 여가공간 발전
가변형 헤드·소음방지 메트 등
효율성 만점 '침실가구' 선봬

베나토. /에이스침대

티볼리. /까사미아

프리미엄 갤러리 침실 세트. /에몬스가구

가을을 맞아 신혼부부가 부쩍 늘었다.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신혼집은 최대의 관심사다. 특히 신혼의 밤을 책임지는 침실이야 말로 신혼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가구 업계는 신혼의 침실 공략에 나섰다.

한샘이 출시한 '밀로 침대'는 여가활동을 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개발됐다.

신혼부부의 침대는 잠을 자는 것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편히 기댈 수 있는 헤드(head·머리받침)'다.

밀로침대는 헤드를 원하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한 헤드리클라이닝 기능을 갖춘 침대다.

책이나 영화를 볼 때 또는 침대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때 등 다양한 활동에 따라 헤드를 조절해 침대위에서의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색상은 웜그레이(중간회색)로 차분한 분위기의 침실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퀸 사이즈 139만9000원, 킹 사이즈 148만8000원이다.

에이스침대는 지성과 수애가 추천하는 '베나토(VENATO)'와 '노벨라(NOVELLA)' 침대를 선보였다.

밀로 침실. /한샘

베나토는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매칭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마감이 장점이다. 최고급 건식 천연 무늬목 조판 기법을 적용해 나뭇결이 주는 내추럴함과 부드러움을 연출한다.

노벨라는 프레임 없는 투 매트리스 형태다. 두꺼운 건식 무늬목을 조판해 원목의 질감을 느낄수 있다.

에이스침대는 디자인만큼이나 매트리스 제작 기술이 훌륭하다고 자부한다. 세계 14개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Z센서'로 매트리스 내 스프링 간의 마찰로 인한 소음을 완벽하게 방지해 준다.

에몬스가구는 '프리미엄 갤러리 침실시리즈'를 선보였다.

프리미엄 갤러리 침실시리즈는 베이지 컬러의 하이그로시 도어와 내추럴한 오크컬러의 갤러리 도어가 매치돼 화사한 공간을 연출한다.

침대 헤드에는 간단한 수납의 선반 기능과 LED 조명이 있어 수면 전 독서나 음악 감상 등을 할 수 있으며 소등 또한 간단히 할 수 있다.

까사미아는 침실가구 시리즈 '티볼리' (Tivoli)를 선보였다. 티볼리는 천연 호두나무 무늬목 소재로 제작된 침실가구다.

차분한 다크브라운(dark brown·흑갈색) 색상과 단순한 디자인으로 침구와 커튼, 러그 등의 포인트 소품에 따라 다양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가격은 퀸 사이즈 침대 92만원, 와드체스트 89만원, 사이드테이블 28만원, 거울 20만원이며 따로 구매가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서재는 세련된 '철제'… 거실은 따뜻한 '북유럽 스타일'

한샘, 신혼집 인테리어 팁

남녀노소 '요리' 열광
'다이닝' 꾸미기도 대세

신혼부부는 고민이 많다. 아직 내 집을 마련할 경제력은 안 되지만 전셋집에서 대충 살고 싶지는 않다.

1일 한샘(대표 최양하)은 트렌드에 민감한 신혼부부를 위해 '2015년 신혼 인테리어 트렌드'를 소개했다.

과거 집의 업무용 공간이었던 서재는 근래에 들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인테리어 공간으로 변화했다.

특히 철제 책상, 포인트 컬러가 있는 책장 등 디자인 요소가 살아있는 책상과 책장을 선호하는 추세다.

한샘의 '빈트 책상'과 '샘스틸 책장'은 기존 책상이나 책장보다 크기가 작으면서도 단순 배치만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철제 프레임 등으로 디자인돼 세련된 서재 연출이 가능하다.

'빈트 책상'과 '샘스틸 책장'.

24평형 거실, 주방 모델하우스.

2015년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키워드는 '북유럽 스타일'이다. 최근 몇 년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북유럽 스타일은 기존 밝고 캐주얼한 느낌에서 올해 들어 다크 브라운(흑갈색)톤의 중후한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다.

한샘의 거실 소파 '알렌'과 '밀로 침대'는 이러한 북유럽 스타일을 담았다. 색상의 톤다운으로 안정감있는 침실과 거실을 연출한다. 특히 알렌 소파는 단순한 디자인에 원목 노출 비중을 높여 나무무늬가 따뜻한 느낌을 준다. 또한 24평형(79㎡) 작은 집에 사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1인용도 출시됐다.

올해 인테리어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요리'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리에 대한 관심이 늘며 '다이닝'(부엌) 꾸미기에 관심을 가지는 신혼부부가 부쩍 늘었다.

이에 따라 한샘은 주방수납 그릇장과 단순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콜링 6인용 식탁을 이달 내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고위험 임산부 '최대 60만원' 지원

하반기 대상자 290명 확정
진료·검사·분만·입원비 등
구비 서류 23일까지 제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함께 실시하는 '하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대상자' 290명이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민간협력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인구보건협회가 생명보험재단으로부터 16억 3000만원을 후원받아 총 2112명을 지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분만예정일(40주 기준)이 6월에서 10월까지의 고위험임산부 607명의 신청을 받아 산모연령, 자녀수, 소득수준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 교차심사 등 선정기준을 통해 최종 290명이 선정됐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진료, 검사, 분만비, 입원비 등)를 1인 최대 60만원(국민행복카드 금액제외)까지 지원된다. 지급 청구 제출 구비서류를 오는 23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로 우편청구, 순차적으로 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로부터 고위험임산부의 3대 질환(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의 90%(최대300만원)를 지원받고 있는 산모의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선정자 명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블로그를 활용하거나 안내전화(1644-3590)로 문의하면 된다

생명보험재단이 하반기 고위험 임산부지원사업의 신청자들을 분석한 결과 산모 나이는 평균 33.4세, 최고령 산모는 44세로 나타났다. 첫째 출산 산모가 54.5%로 가장 많았고, 둘째 출산 산모는 34.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의료비지원 대상 신청은 전국 17개 시도지역에서 이뤄졌으며 서울(20.3%), 경기(29.5%), 인천(4.8%) 등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홈플러스 "반값에 쇼핑하세요"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이달 14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홈플러스 그랜드 세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홈플러스 그랜드 세일에서는 인기 생필품 최대 반값 균일가, 냉장고·TV·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 최대 50% 할인, F2F 의류 50% 할인, 인기세계맥주 할인 행사 등이 진행된다. /홈플러스 제공

흥사단
남녀 합창단원 모집

흥사단합창단(지휘 임향빈)이 남녀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파트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등 모든 음역이다.

노래를 사랑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합창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한다.

합창단은 후손 없는 광복군 18기가 묻혀있는 서울 수유리 '무후광복군 묘지'에서 매년 추석·설 명절에 추모가를 올리고 있다.

흥사단(이사장 이윤배) 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102년 역사를 가진 민족운동단체로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을, 현재는 민족부흥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10-3552-4243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신설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심화진)가 화장품·피부미용·메이크업·특수분장 등 뷰티 산업 관련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원을 신설한다.

1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뷰티융합대학원'을 운영,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첫 신입생 모집 서류를 접수한다.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은 화장품학, 피부미용학, 메이크업·특수분장학 등 3개의 세부 전공이 설치된다.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유선준 기자

이대목동병원, 부정맥 치료 경쟁력 강화

부정맥 클리닉 개소
부정맥 전문 의료진 영입
3차 디지털영상장비 도입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센터장 신길자)가 1일 부정맥 클리닉 개소식을 개최하고 부정맥 치료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심방세동을 비롯해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각종 부정맥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는 급성 뇌경색과 급성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부정맥 치료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최신의 장비를 이용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는 부정맥 진료 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부정맥 진료 전문의인 박준범 교수를 영입했다. 이어 9월에 첨단 부정맥 영상진단 장비인 3차원 디지털 심장혈관조영기를 도입하고 부정맥 전문 클리닉을 개소하게 된 것이다.

부정맥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이대목동병원 부정맥 클리닉은 간단한 약물 치료에서부터 전극도자 절제술, 심박동기,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과 심장 재동기화 시술에 이르기까지 부정맥과 관련한 모든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신길자 심장혈관센터장은 "부정맥 전문 의료진의 영입과 3차원 디지털 영상 장비 도입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번에 부정맥 클리닉을 개소하게 됐다"며 "부정맥 전문 클리닉 개소를 통해 부정맥 환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새로나왔어요

한섬
시리즈 1 to 10 스웻 콜렉션
내일부터 편집매장서 판매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전문기업 한섬(대표 김형종)은 3일부터 해외의류브랜드 편집매장인 '톰 그레이하운드'에서 국내 브랜드 스튜디오 콘크리트의 '시리즈 1 to 10 스웻 콜렉션'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즌 신상품은 가을에 어울리는 버건디, 그레이 컬러를 더하고 등 부분의 패치를 인공피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맨투맨 티셔츠 외에 여성 고객을 겨냥한 '크롭형 디자인(허리 라인까지만 오는 짧은 티셔츠)' 도 선보였다.

뚜레쥬르
'바른생활' 캐릭터 케이크
내달 중순까지 한시 판매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인기 캐릭터 '바른생활'을 활용한 케이크를 기간 한정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바른생활은 1970년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모티브로 한 인기 캐릭터다.

뚜레쥬르가 내달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공구레츄레이션' 케이크는 '바른생활' 캐릭터의 웃음 요소를 그대로 케이크에 옮긴 제품이다. 케이크 위에 '바른생활' 캐릭터 초콜릿 사인판을 올리고 '축하는 셀프'라는 초콜릿 장식을 세워 특유의 해학적인 스토리를 담았다. 가격은 1만6000원이다.

CJ제일제당
따뜻하게 즐기는 과일초
'쁘띠첼 미초 자몽' 출시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100% 과일발효 음용식초 쁘띠첼 미초를 따뜻하게 즐기는 '쁘띠첼 미초 자몽'을 1일 출시했다.

쁘띠첼 미초 자몽은 이스라엘산 자몽을 사용해 100% 과즙을 자연 숙성시킨 과일 발효 식초다. 기존의 음용식초와는 달리 따뜻하게 차(茶) 형태로 마시거나 시원하게 얼음과 함께 마셔도 자몽 특유의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할인점 기준으로 900㎖에 1만300원이다.

star bag

3개월 만에 컴백

그룹 **비투비**가 오는 12일 자정 미니 7집 음반 '아이 민(I Mean)'을 발표하고 약 3개월 만에 컴백한다. 소속사 측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열정을 쏟아 부은 비투비의 음악적 변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전적인 솔로곡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데뷔 이후 첫 솔로 앨범을 7일 자정 발표한다. 타이틀곡은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 '아이(I)'다. 힙합 뮤지션 버벌진트가 랩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데뷔 3주년 팬미팅

걸그룹 **AOA**가 데뷔 3주년을 맞아 첫 팬미팅을 개최한다. 오는 4일 상명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첫 팬 미팅에서 AOA는 진솔한 이야기와 이벤트, 미니 콘서트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완전체로 뭉쳤다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가 완전체로 뭉쳤다. 멤버 제아, 나르샤, 미료는 가인의 소속사 에이팝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올 가을 중 컴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옥에서…' 크랭크업

배우 **김명민** 주연의 영화 '감옥에서 온 편지'(가제)가 지난달 26일크랭크업했다. 브로커 필재가 의문의 편지 한통을 받으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영화 '팬'으로 돌아온 **휴 잭맨**

할리우드 스타 휴 잭맨(46)이 동화 '피터 팬'을 원안으로 한 영화 '팬'으로 오는 8일 국내 극장가를 찾는다. '오만과 편견' '어톤먼트' '안나 카레리나' 등을 만든 조 라이트 감독이 연출한 가족영화다. 휴 잭맨은 피터 팬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악당 해적 검은 수염을 연기했다. '채피'에 이은 두 번째 악역 연기다.

/도쿄(일본)=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아이들 눈으로 본 악독한 어른

동화 피터팬 재해석한 가족영화
시나리오·감독에 끌려서 선택
실제로는 두 아이의 착한 아빠
"서울 홍보대사" 한국 애정 과시도

'팬'은 '피터 팬은 어떻게 네버랜드에 오게 됐나'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영화다. 고아로 태어난 피터가 네버랜드에서 청년 제임스 후크와 함께 검은 수염에 맞서며 진정한 피터 팬이 돼가는 과정을 그린다. 휴 잭맨은 이번 영화에서 악역 검은 수염으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 삭발 머리에 검은 눈화장으로 악랄함을 드러냈다. '엑스맨' 시리즈의 울버린,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떠올리면 파격적인 변신이다.

1일 오후 일본 도쿄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휴 잭맨은 시나리오와 조 라이트 감독을 영화 출연 이유로 꼽았다. 그는 "9~10년 전 니콜 키드먼이 '역량이 있는 감독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을 들었다. 인상적인 말이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 라이트 감독과오래 전부터 작업하고 싶었다는 뜻이었다. 또한 "시나리오도 마음에 들었고 조 라이트 감독이 연출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움직였다"며 "검은 수염이 아닌 캐릭터였어도 출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속 검은 수염은 자신의 영생을 위해 고아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악독한 인물이다. 수시로 마음을 바꾸는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휴 잭맨은 검은 수염을 "아이들의 눈으로 본 어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의 눈에 어른은 참 변덕스럽고 무서우면서도 우스운 사람들"이라며 "원작에 대한 조 라이트 감독의 해석도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외모 변신에 얽힌 에피소드도 털어놨다. 휴 잭맨은 "갑자기 대머리가 되는 바람에 가족들이 몇 달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전작 '채피'에서의 악역은 머리숱이 풍성했다면 '팬'의 검은 수염은 머리가 없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팬'의 검은 수염은 나쁜 어른이다. 그러나 실제 휴 잭맨은 입양한 두 자녀를 친부모처럼 키우고 있는 착한 어른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인생에 대한 조언으로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라"는 말을 꼽았다.

"어릴 때 아버지는 저에게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라'며 용기를 북돋워주셨습니다. 회계사셨던 아버지가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죠. 그런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해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본인이 추구하는 걸 끊임없이 매진하라고요. 타인을 존중하라는 말도 함께요."

대표적인 친한파 스타인 휴 잭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나타냈다. 그는 "혹시 모를까봐 이야기하는데 나는 서울 홍보대사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전했다.

사진/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지난해 2014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공연 중인 그룹 빅뱅 멤버 태양.

내달 7일 '2015 멜론 뮤직 어워드'

주제는 '뮤직커넥트'
총 20개 부문 시상

음악 시상식 '2015 멜론 뮤직 어워드(MelOn Music Awards)'가 다음달 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멜론 뮤직 어워드는 국내 최대 음악 시상식이다. 케이팝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매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국내외 팬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이유, 태양, 비스트, 씨스타, 에이핑크 등이 참석해 색다른 편곡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올해는 '뮤직커넥트(MusiConnect)'라는 콘셉트 아래 아티스트와 멜론 고객이 음악으로 교감하고 소통한 기록을 되돌아보는 음악 축제의 장을 펼친다. 시상 부분은 '멜론 뮤직 어워드 톱10'을 비롯해 아티스트상, 앨범상 등 주요상 5개 부문과 인기상, 뮤직스타일상, 특별상 등 총 20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행사를 주최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신원수 대표이사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멜론 뮤직어워드는 1년간 멜론 사이트의 이용 데이터와 팬들의 자발적인 온라인 투표로 수상자가 선정돼 공신력을 인정 받고 있는 국내 대표 음악시상식"이라며 "앞으로도 멜론은 국내 음악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과 상생은 물론 케이팝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음악을 매개로 아티스트와 국내외 팬들이 하나되어 즐기는 축제의 장인 '멜론 뮤직 어워드'를 매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병호 기자

FashionN
매주 목요일 밤 9시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작가 미술장터 열린다

6일까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2015 작가 미술장터'가 광화문에 펼쳐진다. 2~6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K아트 거리소통 프로젝트'가 열린다. 한국미술협회 회원 작가 2000여 명이 2400여 점을 전시, 판매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개막일인 2일에는 작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5m 길이의 캔버스에 '가을로 물든 광화문'을 소재로 한 대형 작품을 그리는 이벤트가 마련된다. 또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채로운 한국 전통미술 체험 행사도 열린다. 전통 붓 잡는 법 배우기, 아름다운 한글 쓰기, 문방사우 배우기, 민화제작, 선묵화 체험, 팔만대장경 판 뜨기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2015 작가 미술장터'는 2일부터 11일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전시관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2015 고양미술장터',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영등포 커먼센터에서 열리는 '오늘의 살롱 2015'와 같은 기간 부산 옛 해운대역에서 열리는 '2015비아트마켓'으로 이어진다. /이예진 기자

'아리랑'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

광복 70년기념 '아리랑 대축제'
7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광장
체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아리랑'으로 하나되는 감동의 무대가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 문화융성위원회는 광복 70년기념 '아리랑 대축제'를 개최한다.

광복 70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아리랑 대축제'는 기존 아리랑 관련 축제들과 차별성을 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각적 표현, 스토리 콘텐츠,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 주력해 아리랑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되도록 노력했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리는 '아리랑 대축제' 공연을 중심으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아리랑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서울 경복궁과 건대입구역 '커먼그라운드'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5일 오후 7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리는 '아리랑 대축제' 공연에서는 전통예술, 재즈, 케이 팝(K-pop) 등 다채로운 형태의 아리랑을 만날 수 있다.

광복 70주년 아리랑 퍼포먼스. /연합뉴스

인순이, 김덕수 사물놀이패, 에스지(SG)워너비, 씨스타, 에일리 등 세대를 초월하는 스타들이 공연에 대거 출연해 광복 70년의 의미를 함께 돌아본다.

특히 광복 70년을 상징하는 70인조 합창단이 부르는 아리랑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경복궁 협생문 인근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아리랑 듣기 체험을 비롯해 아리랑의 고유한 가락에 새로운 박자를 입히는 게임 체험, 세계 전통악기로 아리랑을 연주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아리랑에 대한 색다른 체험이 아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운다.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펼쳐지는 '아리랑 스트리트 위크'는 건대입구역에 있는 컨테이너복합쇼핑몰 '커먼그라운드'에서 펼쳐진다.

'아리랑 비트 스튜디오' 등 아리랑을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는 체험들이 준비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젊은 세대들도 즐겁게 아리랑을 접할 수 있다.

'노래'가 아닌 '스토리'로서의 아리랑도 준비됐다. 4일 펼쳐지는 '아리랑 토크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연사들이 아리랑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풀어낸다. 3일에는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제잉 공연과 비보잉 공연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리랑 대축제'를 통해 아리랑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의 전통음악인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더불어 앞으로 전승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 속 아리랑을 확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gree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생선구이 맛에 반한 라둥이

◆ SBS '오 마이 베이비'
토요일 오후 4시 50분

라둥이네는 명절을 색다르게 즐기기 위해 낚시터를 방문한다. 한창 먹방에 물오른 라둥이는 낚시보다는 생선구이를 먹을 생각에 군침을 흘린다. 아빠 임효성은 아이들에게 낚시의 묘미인 손맛을 알려주기 위해 갖은 애를 쓰지만 아이들은 손맛보다 생선구이의 맛에만 관심을 갖는다. 결국 라둥이는 숯불에 구워진 은어를 맛보고 율동으로 맛 표현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춤을 개발해낸다.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 2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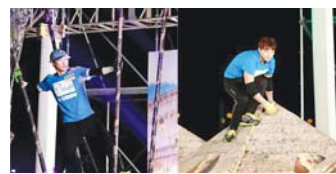
여섯 멤버들은 아이템을 직접 기획하는데 도전한다. 두 명씩 팀을 이뤄 갖은 아이디어를 짜내 총 10개의 기획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만 50명의 PD 심사위원에게 독설을 듣는다.

◆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토요일 오후 11시 15분

걸그룹 AOA의 초아가 컴백한다. 초아는 지금까지의 형식과는 다르게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 1인칭 실시간 연애 시뮬레이션으로 시청자들의 일일 여자친구가 된다.

◆ KBS2 '출발 드림팀2'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중국 드림팀과의 세 번째 대결로 종합장애물 5종 경기를 진행한다. 고대 문명을 형상화한 장애물로 만든 세트에서 양국의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친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올`리브
3일(토)	12:10 국악한마당 13:00 동물의 왕국 14:00 헬로카봇 2 14:30 두리둥실 뭉게공항 3 15:00 러브 인 미얀마 (재) 16:05 한국인의 밥상 (재) 17:10 황금의 펜타곤 시즌3 18:15 동행 19:10 다큐 공감 20:00 오늘, 미래를 만나다 21:00 KBS 뉴스 9 21:40 글로벌 다큐멘터리 라이프 스토리 22:35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3:45 콘서트 7080	11:30 TOP 밴드 3 12:5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14:50 슈퍼맨이 돌아왔다 16:45 나를 돌아봐 스페셜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연예가 중계 22:3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3:50 추석특집 속 보이는 라디오 여우사이 (재)	12:00 MBC 뉴스 12:10 추석특집 2015 아이돌스타 육상 씨름 농구 풋살 양궁 선수권대회 스페셜 13:35 그녀는 예뻤다 (재) 15:40 MBC 뉴스 15:50 쇼! 음악중심 17:00 우리 결혼했어요 18:25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4: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2:00 SBS 뉴스 12:10 육룡이 나르샤-육룡은 누구인가? (재) 13:20 미세스캅 (재) 14:30 웃음을 찾는 사람들 (재) 15:40 SBS 뉴스 15:50 런닝맨 (재) 17:00 오!마이 베이비 18:25 질주본능 더 레이서 20:00 SBS 8 뉴스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애인 있어요 23:10 그것이 알고 싶다 24:15 2015 경주 한류 드림콘서트	10:10 디데이 (재) 11:30 비정상회담 (재) 13:00 JTBC 뉴스 13:20 썰전 스페셜 (재) 14:3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6:00 히든싱어 4 커밍순 특집 도플싱어 가요제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디데이 21: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00 히든싱어 4	10:00 아침엔 매일경제 11: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5:30 엄지의 제왕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알토란 (재) 19:40 MBN 뉴스 8 20:3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3:00 속풀이쇼 동치미 24:50 천기누설 스페셜 (재)	11:10 두번째 스무살 (재) 12:3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5:10 집밥 백선생 (재) 16:30 두번째 스무살 (재) 21:40 SNL 코리아 시즌6 23:30 집밥 백선생 (재) 24:50 두번째 스무살 (재)	11:00 오늘 뭐 먹지? 12:00 2015 테이스티로드 13: 00 올리브쇼 2015 14:10 비법 15:20 오늘 뭐 먹지? 16:20 2015 테이스티로드 17:20 올리브쇼 2015 18:30 레이먼킴의 옥상캠핑 19:00 레이먼킴의 옥상캠핑 19:30 집밥 백선생 21:00 2015 테이스티로드 22:00 오늘 뭐 먹지? 23:00 2015 테이스티로드 24:00 비법
4일(일)	12:10 전국노래자랑 13:20 스카우트 2 14:10 2015 K리그 클래식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7:10 미디어 인사이드 17:40 열린음악회 19:00 KBS 뉴스 19:10 한글날 기획 도전 골든벨 20:00 오늘, 미래를 만나다 21:00 KBS 뉴스 9 21:40 글로벌 다큐멘터리 라이프 스토리 22:35 역사저널 그날 23:25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낙인 24:15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0: 30 출발 드림팀 시즌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0 추석특집 네 멋대로 해라 (재) 14:15 부탁해요, 엄마 (재) 16:50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개그 콘서트 22:55 다큐멘터리 3일 23:55 어송포유 24:50 영화가 좋다	10:5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15 출발! 비디오 여행 13:05 엄마 (재) 14:20 내 딸 금사월 (재) 15:35 MBC 뉴스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시사매거진 2580 24:05 추석특집 능력자들 스페셜	09:30 TV 동물농장 10:50 정글의 법칙 (재) 12:00 SBS 뉴스 12:10 애인 있어요 (재) 13:15 용팔이 (재) 15:30 SBS 뉴스 15:40 SBS 인기가요 16: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00 SBS 8 뉴스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00 애인 있어요 23:10 SBS 스페셜 24:10 2015-16 잉글리쉬 프리미어리그	11:00 히든싱어 4 (재) 13:00 JTBC 뉴스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45 비정상회담 (재) 16:1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7:40 히든싱어 4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21:40 김제동의 톡투유 23: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4:00 마녀사냥 (재)	10:00 MBN 뉴스와이드 2부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3:5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5:30 아궁이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엄지의 제왕 (재) 19:40 MBN 뉴스 8 20:3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40 천기누설 23:00 알토란 24:40 아궁이 (재)	12:30 SNL 코리아 시즌6 (재) 14:20 두번째 스무살 (재) 17:00 집밥 백선생 (재) 18:20 수요미식회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50 문제적 남자 24:20 처용 2 (재)	10:30 올리브쇼 2015 11:40 비법 13:00 오늘 뭐 먹지? 14:00 2015 테이스티로드 15:00 비법 16:10 올리브쇼 미니 NEW 16:40 마스터셰프 코리아3 더 레시피 17:10 노 오븐 디저트 2 18:10 올리브쇼 2015 19:20 비법 20:4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22:00 2015 테이스티로드 23:00 오늘 뭐 먹지? 24:00 언제나 칸타레2

스와잭·신재용 '헤드샷'으로 자동 퇴장

스포츠 주간 해프닝

프로야구에서 하루에 두 번의 헤드샷 퇴장이 나왔다.

두산 베어스 외국인 투수 앤서니 스와잭은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0-1로 뒤진 2회초 무사 1루에서 손시헌을 상대하던 도중 초구에 상대 헬멧을 맞혔다. 이민호 구심은 이를 '헤드샷'으로 판단해 퇴장을 명했다.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는 SK 중간계투 신재웅이 1구만 던지고 자동 퇴장당했다. 신재웅은 4-1로 앞선 7회말 2사 1루에서 SK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박용택을 상대로 초구를 던졌으나 공이 그의 머리로 향했다. 이 역시 '헤드샷'으로 판단돼 퇴장을 당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시즌부터 선수 보호를 위해 '투수가 직구로 타자의 머리를 맞히면 자동으로 퇴장시킨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헤드샷 퇴장은 올 시즌 7, 8번째다.

앤서니 스와잭.

엘리우드 킵초게.

우승은 했지만…

엘리우드 킵초게(34·케냐)가 지난달 28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5 베를린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올 시즌 남자 마라톤 최고 기록인 2시간4분00초에 42.195㎞ 레이스를 마치며 월계관을 썼지만 울상을 지었다.

경기를 마친 뒤 가진 인터뷰에서 킵초게는 "세계 기록을 세우지 못해 정말 아쉽다"고 했다. 마라톤 세계 기록은 지난해 베를린 마라톤에서 데니스 키메토가 기록한 2시간2분57초다.

킵초게는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레이스 초반에 신발 안창이 튀어 나왔다. 나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서 달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지붕 사이에 낀 나성범의 방망이.

쓸 수 없게 된 방망이

프로야구에서 타자의 손을 벗어난 방망이가 지붕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NC의 나성범은 팀이 5-0으로 앞선 5회말 1사 때 타석에 나서 투수 박성호와 맞붙었다. 나성범은 박성호의 5구를 노리고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으나 타구는 파울이 됐다. 이때 그의 손을 떠난 방망이는 하늘 높이 솟구쳐 NC쪽 더그아웃의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이때 방망이가 지붕과 간판 사이 틈으로 완벽하게 끼어버렸다.

지붕에 낀 방망이를 쳐다만 볼 수 밖에 없었던 나성범은 낯선 새 방망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삼진을 당하고 말았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손흥민, 쿠웨이트전 결장할 듯

손흥민(가운데)이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후반전에 교체 아웃되면서 포체티노 감독(오른쪽)의 위로를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부상 회복 몇 주 걸려

손흥민(23·토트넘)이 부상으로 오는 8일 열리는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쿠웨이트 원정길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1일(한국시간) 구단 트위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흥민이 지난 27일 맨체스터시티와 경기 도중 발을 다쳐 통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후 며칠간 상태를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그러나 손흥민이 부상을 회복하는 데에는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일 유로파리그 AS모나코(프랑스)와의 조별리그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몇 주간 출전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합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잉글랜드에 머무를 것"이라며 A매치에 나설 수 없음을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손흥민 부상은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매일 부상 부위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희철 기자

기성용 '손흥민 없는' 토트넘과 맞대결

'코리언 더비' 무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사진)이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을 상대한다.

스완지시티는 4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2015-2016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이날 경기는 기성용과 손흥민의 EPL 첫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손흥민의 부상으로 '코리언 더비'는 무산됐다.

기성용은 손흥민의 소속팀을 상대로 첫 골에 도전한다. 아직 이번 시즌 마수걸이 골을 넣지 못했다. 지난 시즌 EPL에서 아시아 선수 역대 한 시즌 최다골(8골) 기록을 세웠으나 이번 시즌 초반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스완지시티 또한 최근 정규리그를 포함해 4경기에서 1골밖에 넣지 못하는 등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스완지시티는 2승3무2패(승점 9)로 리그 11위다. 토트넘을 이기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3승3무1패(승점 12)의 토트넘은 승리 추가시 6위에서 2위권으로 진입하게 돼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3일에는 이청용의 크리스털 팰리스가 웨스트브롬을 홈으로 불러들여 연승에 나선다. 지난 7라운드에서 결장한 이청용은 이번 경기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5일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3총사' 구자철·지동원·홍정호가 류승우의 레버쿠젠과 원정경기를 갖는다. 같은 시간 도르트문트 박주호는 리그 최강 바이에른 뮌헨 원정길에 오른다. /하희철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가 1일(한국시간) 스웨덴 스베드방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골을 넣은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호날두 500호골 돌파

챔피언스리그

멀티골로 레알 완승 이끌어 팀내 역대 최다 골 '겹경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팀 역대 최다골 대기록을 세웠다.

레알 마드리드는 1일(한국시간) 스웨덴 말뫼의 스베드방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멀티골을 올린 호날두의 맹활약에 힘입어 말뫼에 2-0 완승을 거뒀다.

호날두는 전반 29분 이스코의 도움을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날린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개인 통산 프로 500호골을 기록했다.

후반 45분에는 루카스 바스케스가 골대 오른쪽에서 찔러준 공을 문전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 쐐기골을 뽑았다.

이로써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323골을 기록해 팀 역사상 최다 득점자가 됐다. '레전드' 라울 곤살레스(뉴욕 코스모스)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741경기를 뛰며 323골을 넣었으나 호날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308경기만에 대기록을 썼다. 또한 곤살레스를 넘어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이날 경기까지 65경기에서 67골을 터뜨려 103경기에서 66골을 기록한 곤살레스를 제쳤다. /하희철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9
		7	4					
	2		6	9		1		
8		3	1	5				
	9	2				4	8	
				4	9	2		5
		9		2	7		6	
					8	5		
3						9		

7			5		6	4		
						3		
3		4						6
	2			6	5		8	1
				7				
1	7		3	4			9	
9						1		2
		2						
		6	1		4			8

스도쿠 정답

6	8	1	2	7	5	3	4	9
9	3	7	4	8	1	6	5	2
4	2	5	6	9	3	1	7	8
8	4	3	1	5	2	7	9	6
5	9	2	7	3	6	4	8	1
7	1	6	8	4	9	2	3	5
1	5	9	3	2	7	8	6	4
2	7	4	9	6	8	5	1	3
3	6	8	5	1	4	9	2	7

7	8	1	5	3	6	4	2	9
2	6	5	4	8	9	3	1	7
3	9	4	2	1	7	8	5	6
4	2	3	9	6	5	7	8	1
6	5	9	8	7	1	2	4	3
1	7	8	3	4	2	6	9	5
9	4	7	6	5	8	1	3	2
8	1	2	7	9	3	5	6	4
5	3	6	1	2	4	9	7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look like I just rolled out of bed

A: Put your shoes on! I'm on my way over.

B: Wha? Seriously?

A: Yeah. I'm almost there. About 5 minutes away.

B: No! I have to take a shower! Come by later.

A: No can do. I've got plans later. Just throw something on.

B: It's just you that's coming, right? I'm not suitable for innocent eyes.

A: Su-ji is with me!

B: Are you kidding? **I look like I just rolled out of bed.** Gimme some time!

A: Alright then we'll stop by in 20.

B: K. See u in 20.

나 완전 부스스해

A: 신발 신어! 금방 간다.

B: 잉? 정말?

A: 응. 거의 왔어. 5분쯤 걸려.

B: 안돼! 샤워해야 해! 나중에 와.

A: 그럴 순 없어. 나중에 약속이 있거든. 그냥 대충 입어.

B: 너만 오는 거지, 그치? 남한테 보여줄 몰골이 아니야.

A: 수지랑 같이 가는데!

B: 농담하냐? **나 완전 부스스해.** 시간 좀 줘!

A: 알았어. 그럼 20분 정도 있다 들를게.

B: 오케이. 20분 있다가 보자.

* Wha: what과 같은 표현, 잉, 뭐
* K: Okay의 줄인 표현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여윳돈이 생겼는데 사업을 해도 될가요?
사업운 손재수… 역학공부로 주변 도우시길

스데반 남자 56년 11월 28일 6시경

Q 그동안 부모님과 조상 덕으로 땅을 유산으로 받아 보상을 받고 직장생활도 잘해왔습니다. 물려받은 땅이 개발지역으로 바뀌어 보상을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역학 공부를 해온 제가 보기에 저의 운이 이제까지는 잘 나갔지만 앞으로는 사업이나 다른 투자를 하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내 사주를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아마도 아전인수 격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돈 냄새를 맡은 주변사람들의 투자 권유가 많아 고민 입니다. 선생님께 조언을 부탁드리니 명쾌한 판단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A 사람은 누구나 사업에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만 성공을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일반적인 공통점은 매우 근면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세도 따라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과 어렵게 꼬여가며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서 운칠기삼(運七氣三)이란 말이 예사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사주를 보고 운이 없는데 노력을 하면 된다고 하여 노하우와 지혜 없이 시작을 할 때 어렵게 일이 진행되고 꼬여서 나중에는 실패를 겪게 되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은 패기와 자신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처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업의 컨설턴트를 찾아가는 것과 함께 역학 상담소를 찾아가서 운을 보는 것입니다.
귀하는 기토(己土)사주가 겨울에 태어나 땅이 꽁꽁 얼어 있는 형상입니다. 겉으로는 음(陰)이지만 내성이 왕양(旺陽)하여 고집불통 불굴의 의지에 차 있습니다만 독선으로 흘러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일지에 상관겁재(傷官劫財)의 성분은 대개 사업의 변동이 심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이익이 되면 불의와도 타협을 하는 속성을 내포 하고 있어서 관재구설 형(刑)을 겪는다는 암시가 있으므로 앞으로라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역학공부를 한다고 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에서 화국(火局)을 이뤄 재물인 재성(財星)을 극(剋)하는데 사업 운이 절묘사(絶墓死:단절되어 묘지로 들어가서 죽은 것과 같음)궁으로 흐르니 손재수를 당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인수운(印綬運:문서)에 비견(比肩:지인)이들어오니 공부를 틈틈이 해 주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일 (음 8월 20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배신을 당할 우려가 큽니다. **60년생**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72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84년생** 욕심을 내게 되면 이익은 없고 손해만 보게 됩니다.

49년생 사소한 일은 누구랑 의논하지 마세요. **61년생** 동쪽은 나쁜 일이 가득합니다. **73년생** 재물이 집으로 들어올지라도 그로 인해 해를 입게 됩니다. **85년생** 나아가기가 어렵겠습니다.

50년생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62년생** 금전운이 비로소 돌아옵니다. **74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여행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도록 하세요.

51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해야 끝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63년생** 권력 같은 곳에는 아랑곳하지 마세요. **75년생** 좋은 사람이 도와줍니다. **87년생** 반드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52년생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64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76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서 찾도록 하세요. **88년생**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53년생 성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65년생** 좋은 성과 거두겠습니다. **77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89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넘치고 즐거움을 주리라 봅니다.

54년생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립니다. **66년생** 고집하지 마세요. **78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90년생** 세상에는 귀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55년생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67년생** 그룹에 행운이 있는 날입니다. **79년생** 자신을 어필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9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6년생 거짓말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68년생** 매사가 잘 풀려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다. **80년생** 오늘 하루 유익한 날이 됩니다. **92년생**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57년생 안으로 손해와 좌절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69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81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93년생**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58년생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70년생** 신제품 개발을 궁리하기에 최적인 하루입니다. **82년생**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94년생**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이성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59년생 건강에 항상 신경을 쓰세요. **71년생** 부업에 도전해 보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83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95년생** 융통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가을철 면역력 높여주는 '버섯'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갖고 있는 버섯은 예로부터 음식이자 약재로 폭 넓게 활용되어 왔다. 환절기에 감기로 고생할 때는 표고버섯 달인 물을 마셨으며, 편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말린 송이가루를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가을철,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버섯이다.

세계 3대 진미로 꼽힐 정도로 향과 맛이 좋은 버섯은 영양 면에서도 슈퍼푸드에 속한다. 버섯의 대표 성분인 베타글루칸은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즉, 대기 오염, 각종 화학첨가물이 든 음식 등 유해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해독 식품으로 적합하다. 또한 버섯은 염증을 가라앉히며,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식품이기도 하다.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기름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있거나 잦은 외식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영양 불균형 상태를 겪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된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위나 장의 트러블을 자주 겪을 때 예민한 위장과 대장을 편안하게 다스려 주는 데도 좋다.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유익균을 증식시켜주고 배변을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버섯은 풍부한 영양을 갖고 있는 반면 칼로리는 낮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혈압과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내장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뱃살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위험한 수준이라면 기름진 육류나 정제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버섯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버섯에는 비타민 B군, 아연 등의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를 풀고 기운을 북돋우는 데도 좋다.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 성분이 풍부해지는 말린 표고버섯은 칼슘의 흡수를 높여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기분 저하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의학 박사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 안되는 이유

기자 수첩
박 상 길
<생활문화부>

정부가 매년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에 팔 걷고 나서고 있지만 부실시공에 따른 '인재(人災)'는 줄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 사당 체육관 붕괴 사고에 이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붕괴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쇼핑몰 분수대 배수로에 세 살배기 아기가 빠져 숨지는 등 부실시공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LH 아파트는 최근 6년간 32만 330가구에서 6만9266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다.

원인은 발주기관의 공사비 후려치기와 이로 인한 참여업체의 책임의식 부재에 있다.

과거에는 건설비가 넉넉한 편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예산 절감과 함께 공사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태만하게 근무하는 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원수급자인 시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주인의식 부재도 부실시공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은 원수급자인 시행사보다는 하청업체인 시공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시행사가 떠 안는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에는 안전·보건·환경(HSE) 담당자가 파견돼 안전교육을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관리감독을 피해 스스로 안전모를 벗고 일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의 안전 부주의로 받게 되는 벌금은 5만원 수준으로 경미하며 현재는 이것조차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태 해결의 첫걸음은 정부 등 발주처가 공사비를 후려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시행사의 줄지은 갑(甲)질을 막을 수 있고 공사에 투입되는 원재료 또한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청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시행사가 하청업체에 따른 부실시공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인 사

◇조선일보 ▷편집국장 김창균 ▷미래전략실장 겸 논설위원 강효상
◇KBS ▷보도본부 선거방송기획단장 장한식
◇BBS불교방송 ▷경영기획국장 겸 포교문화국장 강동훈 ▷보도국장 박관우 ▷편성제작국장 최윤희 ▷기술영상국장 권병훈 ▷전법후원국장 박시하 ▷편성제작국 제작위원 박상필
◇이투데이 ▷전략사업실 사업팀 부장대우 김재현
◇국제신문 ▷논설실장 송문석 ▷수석논설위원 김찬석
◇전북일보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김원용 ▷경제부장 강현규 ▷사회부장 강인석 ▷교육부장 김종표 ▷영상뉴스부장 겸 문화부장 은수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 승진 ▷기업고객사업부 조용수 ▷공공사업본부 전세광 ▷마케팅오퍼레이션즈본부 서광욱 ▷서비스기술본부 이동철 ▷컨수머채널본부 추석준 ▷ OEM 임베디드 사업부 구도완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정명애
◇통일부 △부이사관 승진 ▷통일부(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파견) 추석용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장 이승신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김광수 ▷기획조정실 김성현 ▷운영지원과 송지영 ▷통일정책실 송희경 ▷통일정책실 방태영 ▷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 T/F 박준수 ▷통일교육원 천창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이상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부원장 양근율 △연구소장·본부장·센터장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장 방연근 ▷철도안전인증연구소장 구동회 ▷미래전략센터장 사공명 ▷기획조정본부장 목진용 ▷연구경영본부장 김정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감사부장 오성대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인사팀장 김종훈 ▷의사운영정보팀장 오화세 ▷중소금융과 고상범
◇강원도 △담당급 승진·전보 ▷기획조정실 기획관실 김형진 ▷〃균형발전과 이병영 ▷〃교육법무과 박수연 ▷ 경제진흥국 사회적경제과 김현정 ▷ 문화관광체육국 체육과 배영주 ▷ 총무행정관실(통일부 파견) 한철수▷ 〃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파견) 이만자 ▷ 〃〃 윤종대 ▷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윤원영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김석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김상범 ▷ 〃 정호철 ▷ DMZ박물관 유효숙 ▷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 임성진 ▷ 재난안전실 방재과 박형철

부 고

▲ 정해성씨 별세, 정인철(한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전무)씨 부친상 = 1일 오후 12시 15분, 경기 분당 제생병원 장례식장 특5호, 발인 3일 오전 8시 (031-708-4444)
▲이정란씨 별세, 박병기(하나금융투자 상무)·병권(씨에라팜 이사)씨 모친상, 이용대(에이치제이에프 연구소장)씨 빙모상 = 1일 오전 6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02-2258-5940)
▲황선교씨 별세, 황관순(농협은행 인재개발원장)씨 부친상 = 1일,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3일(010-5552-7401)
▲나천봉씨 별세, 고창윤(전 철원경찰서장)씨 모친상 = 1일 오전 0시5분, 정선병원 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010-5368-2031)

社說

영어 사교육 광풍 사라지기를

교육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성적도 등급만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18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에 따르면 영어 평가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현행 평가에서는 성적표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모두 표시되지만, 앞으로는 9개 등급만 표기된다.

현재 중학교 1학년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능시험방식에 따라 1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상대평가의 공포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도 10점 간격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 있어 보인다. 이를테면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된다. 더욱이 정부는 문제도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무조건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을 듯하다.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오늘날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잘 배워둬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 영어에 대한 맹신이 퍼지면서 영어사교육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1990년대 외국어고가 설립되고 이들 외국어고 졸업생이 대학진학에서 우위를 차지함에 따라 영어사교육 바람은 광풍으로 바뀌었다. 중학생들이 외국어고 입학을 위해 어려운 토플 공부에 매달려야 했고, 영어유치원이 곳곳에 생겨났다.

이와 같은 영어광풍의 부작용은 너무나 컸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자라나는 청소년의 영어 사교육이 기승을 부렸다. 학부모들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포기하고 여유자금을 자녀 사교육에 쏟아부어야 했다. 그러고도 상대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어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실력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에 진출한 이후 스스로 부지런히 학습하면 된다. 한창 발랄하게 뛰어놀아야 할 청소년들을 괴롭혀서 될 일은 아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수능시험 계획을 계기로 영어사교육 광풍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CJ·홈플러스 '친환경 달걀' 허위·과장"

소비자 119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 3곳 "방목 아닌 가둬 키운 닭"

일부 식품·유통업체들이 공장식 닭장에서 낳은 달걀을 마치 초원에서 방목된 닭이 낳은 '친환경 달걀'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단체는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와 CJ제일제당 등이 실제로는 배터리 케이지 안에서 닭을 감금 사육하면서 제품 포장에는 닭들이 초원에서 뛰노는 모습을 사용하거나 '방사 유정란' 등의 문구를 쓰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홈플러스의 '그린라이프 방사 유정란' 포장지에는 초원에서 방목하는 닭과 농장의 사진과 함께 '방사 유정란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어울려 낳은 생명을 존중한 안전한 계란'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CJ제일제당의 '더 안심 건강란' 역시 포장지에 초원에 방목 중인 닭과 농장 사진을 배경으로 '맛있는 자연주의 프레시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초원에서 방목된 닭이 낳은 달걀이 아닌 배터리 케이지에 가둬 사육한 닭이 낳은 달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CJ제일제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신고하기로 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의 장서연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신고는 동물복지와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진정한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해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층간소음 無! 화재걱정 無! 세대간층고 3M!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로얄팰리스만의 안전한 현금카드를 가지세요!

1% 저금리시대 투자대안! 3,000만원 투자로 月 70만원을 번다

ROYAL PALACE VIP CARD
700,000
0123 2961 2780 5678
Richard
VALID THRU 03/17

[신도시 상권!]
[대학가 상권!]
[스퀘어가든 상권!]

분양면적 보다 넓은 전용면적
로얄팰리스 상가 특별분양!!

*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것으로, 실제와는 다르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 저비용관리비 지역냉·난방 시스템적용
-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3.3㎡ 당)
- 층간소음無 소닉스시스템 시공
- 화재위험無 LG하우시스 시공
- 중도금 60% 무이자

1% 저금리시대 투자대안! 3,000만원 투자로 月 70만원을 번다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 명, 시화MTV 약 7만여 명 고용창출

|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 미계약시 청약금 전부 환불됨.

서울대 신도시에 투자가치로 빛난다

시행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 다인건설(주) 신탁 KOREA trust 코리아신탁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